

다 강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늘나라를 향한 영적여정

글 심홍보

기독교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성당 내에서의 이벤트식 행사 참여가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 사랑의 신비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사회에서 구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주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사랑의 뜻대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사랑의 뜻을 주님의 말씀에서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요한 14,23)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로 인도해주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인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려주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현세에서 예기치 않게 겪게 되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밝혀주는 생명의 빛입니다.

이번에 심홍보 신부님께서 소공동체와 단체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며, 활동하는데 있어 신자분들께 도움을 주고자 책을 펴내셨습니다.

이 책을 통해 신자분들은 소공동체와 단체에서 함께 모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와 주시기를 청하며,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귀 기울이며, 그 내용을 새깁니다. 또한

서로 형제자매들의 나눔을 들으며, 주님께서 그 형제자매들과 어떻게 함께하면서 역사하시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주님의 업적을 다 함께 찬미합니다.

심홍보 신부님의 책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자분들께 주님을 기꺼이 사랑하여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고 인류 사회의 평화를 조성하는 좋은 영적 안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살아가는 신자 여러분들이 이 책의 부제처럼 ‘하늘나라를 향한 영적여정’을 충실하고 기쁘게 밟아,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실현하여 성인 성녀가 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2013년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대주교

수영수경



사제로서 신자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의 친교와 지역 사회 복음화를 위해 뛰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째,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의 말씀이 기본과 근거를 이루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미신행위나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앙생활에 주님과 친교를 이루는 고리인 내적 체험이 없다면, 그 신앙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며 신학적인 교의와 사상에 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앙생활에 신비체험은 있지만 그 체험이 내적 감흥으로만 머물고 기도와 절제와 희생 봉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종교적인 신심행위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자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져다주는 성경 말씀과 그에 따른 교회의 가르침인 교리 교육 및 기도와 실천으로 이어지는 영신 성숙을 동시에 도모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은총으로 두 번에 걸친 신학생 30일 영신수련을 동반하게 되었고, 영신수련 과정을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신앙생활이라는 통합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적 활동을 위한 기도와 영성의 성숙을 위한 안내 프로그램으로, 신자들의 친교와 지역 사회 복음화를 향한 성경 말씀 나눔과 적용을 위한 소공동체 구역, 반모임 프로그램으로, 예비 신자들이 자신의 일터와 가정과 친구, 이웃들 사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안에서 풀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예비 신자 교육과 신자 재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하늘나라를 향한 영적여정’으로 정했습니다.

일상속의 영신 수련을 위한 이 프로그램의 신학적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부는 구세사(세상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첫 번째 부분인 구약 성경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해 오셨는가를 되새깁니다.

제2부에서는 구세사의 두 번째 부분인 신약 성경을 통해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시어,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시지만, 하느님께서서는 그 아들을 부활시키셔서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고 감사드립니다.

제3부는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마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였던 것처럼 함께해 주시고,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건설하시고 이끄심을 따릅니다. 아울러 교회는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데, 그 드러내는 일이 바로 ‘성사’이며, 성사적 삶의 실천적인 예로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신원을 모색합니다.

이 교과 과정을 영신수련의 안내서로 삼으시려면, ‘0과 하느님 현존체험과 묵상 및 관상’을 참조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1. 여기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접하는 사건과 상황 안에서 자신의 갈망과 갈등을 살핀 후,
2. 구세사의 각 순간을 통해 주님과 점차로 만나도록 이끄는 성경 말씀을 읽고,
3.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받으며 주님과 함께 10여분 묵상하고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기도에서 실천을 향한 힘을 얻게 됩니다(묵상 시간은 기회와 여건을 보아 점차로 늘려가기를 바랍니다.).

4. 필요하다면 함께 기도한 동료들과 나눔을 가져도 좋습니다.
5. 그 후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를 참조하여, 사랑의 실천을 통해 생활의 개선과 주님의 은총에 따른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점점 주님과 깊은 영적 친교를 맺게 되어,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의 친교와 지역 사회 복음화를 향한 사도적 활동이 영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는 은총의 순간을 체험하며 한 걸음씩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구역, 반모임에서 이 교재를 이용하여 ‘복음 나누기 7단계’를 하실 때에는,

1. 말씀을 가지고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하시고,
2. ‘6단계’에서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를 읽으시고 연구하신 다음 실천약속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일상으로 가는 복음 나누기 7단계 외에도,

1. 일상에서 성경으로 들어가는 여기에서 주님의 눈으로 ‘보고’,
2. 말씀과 나눔 및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를 통해 나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려 ‘듣고’,
3. 실천약속을 하고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방법(보고[관찰] • 듣고[판단] • 사랑하기[실천])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신자나 신자 재교육을 위한 교과 과정으로 삼으시려면,

1. 여기란에 나오는 예제를 다 같이 읽고 나서 서로의 느낌과 생각 또는 자기 경험을 나누고,
2. 성경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3. 말씀 안에서 자신에게 들려온 주님의 뜻을 나눔을 통해 식별하고,
4.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를 참조하여 실천약속을 한 후,

5.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날 들은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방식으로 마치면 됩니다.

가능하면 4-5과에 한 번 신비교육을 병행하여 교리 내용을 습득하는 것은 물론이요 교리시간에 배운 내용을 영적으로 느끼고 깊이 깨닫는 주님과 영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신비교육은 제 책 ‘주님과 정쌍기’(기쁜 소식)를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올 모든 성인 대축일을 맞아, 신자 여러분 모두의 영명축일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고, 함께해 주시면서 지켜주시고 열매 맺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기쁨과 위로와 평화도 아울러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말씀의 힘이 자신을 변화시켜 주님의 사도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영을 통해 힘과 용기를 얻어, 그 힘으로 활동하면서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과 직장, 본당과 지역사회 가운데 하늘나라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총과 사랑이 여러분을 휘감아,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삶의 참 기쁨이 되고 본당 공동체의 친교와 지역사회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주님의 사도가 되시길 성모님께 의탁하며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글을 추천해 주신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님과 그림을 보내주신 김귀웅 신부님과 이 글을 교정해주신 강 디모테아, 심 가타리나 수녀님과 삼성동 성가정 성당 총구역과 사무장님, 출간해 주신 기쁜소식 전갑수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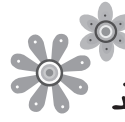
2013년 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에

천주교 삼성동 성가정 성당 주임사제

심홍보 베드로 신부



교과 과정표

순	교과별 내용	주요 성경 구절
0	하느님 현존체험과 묵상 및 관상	마태 11,28-30
1	하느님 체험	이사 43,1-7
2	탈출기-인간 역사와 함께하심	탈출 3,7-14
3	십계명-인간의 길	탈출 20,1-17
4	천지 창조1-하느님께서 만드심	창세 1,1-2,4
5	천지 창조2-인간 창조	창세 2,4-9,15-25
6	인간의 죄-관계가 깨짐!	창세 2,15-17; 3,4-19
7	예언자-하느님 말씀을 전함	2사무 12,1-15
8	신관의 변화와 삶의 변화	창세 4,1-5,8-11
9	나와 함께하신 하느님	시편 139,1-18,23-24
10	인간의 사상과 경험 그 너머	코헬 1,2-3; 3,1-22
11	구원에 이르는 고통	욥 1; 2; 3; 6; 7; 38; 40; 42
12	구세주 탄생예고-겸손과 순명	루카 1,26-38
13	구세주의 가난하고 약한 탄생	루카 2,1-16; 마태 2,1-2,5,9-11
14	세례-아버지의 뜻을 이루심	마태 3,1-4,8,13-17
15	유혹-구원의 방법론 논쟁	마태 4,1-11
16	예수님의 삶-'노동의 복음'	마태 13,54-57
17	구세주의 사명-기쁜 소식 선포	루카 4,16,18-19,21
18	회개-주님 사랑으로 변화됨	루카 19,1-10
19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느님 나라	루카 18,15-17; 마르 5,38-43; 요한 5,1-10
20	참행복(산상 수훈, 진복 팔단)	마태 5,3-12
21	하느님 나라의 최우선권	마태 6,25-34; 마르 4,30-32
22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사랑	루카 15,1-3,11-32
23	부르심, 섬김의 사도직 *평신도 사도직	마르 1,16-18; 3,13-19; 루카 9,23-25; 마태 20,26-28
24	생명의 빵	탈출 16,4,31,35; 요한 6,5-15; 요한 6,54-58,66

25	주님-자연과 우리의 주재자	마태 14,22-33
26	주님의 기도	마태 6,7-15
27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요한 11,3-44
28	수난 배경-신원 고백, 신앙 고백	마태 16,13-23
29	인류 구원을 위한 희생 제사-최후의 만찬	탈출 12,21-27 참조; 마태 26,20-28
30	주님의 수난과 사망 -대속	루카 22,39-23,56
31	부활하신 주님	마태 28,1-10
32	제자들에게 나타나심-발현	루카 24,13-35
33	승천하신 주님, 종말 신앙	마태 28,18-20; 사도 1,8-11
34	성령 강림과 교회	사도 2,1-4,36,41-47
35	삼위 일체이신 하느님	1요한 4,7-21
36	마리아론	요한 1,43-46; 2,1-11
37	전체(세계) 교회사	루카 21,34-36
38	한국 천주 교회사(성지 순례)	김대건 신부의 옥중 서간
39	성사 일반	요한 13,34-35
40	칠성사 - 세례성사	요한 3,1-6,15-17
41	칠성사 - 견진성사	사도 8,14-17
42	칠성사 - 성체성사	요한 6,47-58
43	칠성사 - 고해성사	요한 20,19-23
44	칠성사 - 성품성사	요한 21,15-19
45	칠성사 - 혼인성사	마태 19,1-6
46	칠성사 - 병자성사	마르 6,7-13
47	성사 생활: 사랑의 실천	루카 10,25-37
48	전례 생활	사도 2,46-47
부1	피정	요한 13,4-8,12,15
부2	수록된 용어의 간략한 해설	
부3	성경 구절 찾아보기	
부4	기도문	



추천의 말
도움의 말
교과 과정표
차례

하느님 현존체험과 묵상 및 관상 • 12

구세사1 • **구약 성경의 아버지 하느님**

- 1 내가 너를 사랑한다 • 22
- 2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 25
- 3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 29
- 4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 34
- 5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 39
- 6 너 어디 있느냐 • 43
- 7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 50
- 8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 54
- 9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 58
- 10 모든 것이 허무로다 • 61
- 11 내가 태어난 날 • 67

구세사2 • **신약 성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 12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 74
- 13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 77
- 14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 82
- 15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 85
- 16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 88
- 17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 91
- 18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 95
- 19 소녀야, 일어나라 • 98
- 20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 102
- 21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 107
- 22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 111
- 23 나를 따라오너라 • 116
- 24 나는 생명의 빵이다 • 121
- 25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125
- 26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 128
- 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 133
- 28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 137
- 29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 142
- 30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 146
- 31 평안하냐 • 154
- 32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 158
- 33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서 있느냐 • 162

구세사3 • **교회와 성령**

- 34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 168
- 35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 172
- 36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 176
- 37 그리스도인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 • 179
- 38 교우들은 보십시오 • 183
- 39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 190
- 40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 193
- 41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 • 196
- 42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 198
- 43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 201
- 44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 204
- 45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 207
- 46 기름 부어 고쳐 주었다 • 210
- 47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 213
- 48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 216

부록

- 1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 222
– “하느님께서 나를 돌봐 주셨어요!”
- 2 수록된 용어의 간략한 해설 • 243
- 3 성경 구절 찾아보기 • 252
- 4 기도문 • 260

하느님 현존체험과 묵상 및 관상

01. 하느님 현존체험(주님 모시기)

- 
- ① 오늘 이 기도시간에 주님을 꼭 만나 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청원기도’를 바치십시오.
 - ② 숨을 고르시고, ‘예수님’이나 ‘주님’을 부르시면서 준비기도를 바쳐 ‘하느님 현존 안에’ 깊이 들어가십시오.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주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느껴지시면 놓치지 않도록 계속 주님을 부르시며 다가가십시오. 성급하게 다가가서서 깨지지 않도록 하시고, 천천히 차분히 주님을 모시겠다는 진실한 갈망으로 깊이깊이 기도하십시오.
 - ③ 주님의 품 안에 안기셔도 좋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현존 안에 잠겨 편안히 머무르십시오.

장소와 시간, 자세 준비

일을 멈추고 조용한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성령청원기도 3-5분간,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 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또는 각자 자연스럽게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바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청합니다.)

준비기도 5-10분간,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주님의 현존을 느낍니다.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며, “예수님”
천천히 호흡을 내쉬며, “사랑해요.”라고 기도하면서,
또는 천천히 호흡을 들이쉬며, “예수님”
천천히 호흡을 내쉬며, “어서 오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모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성경말씀 나에게 와서 쉬어라(마태 11,28-30)

11 ²⁸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²⁹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³⁰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현존체험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다가오시길 간절히 청하고, 주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다가오시는 주님을 느끼며... 아니, 주님께 다가서며...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평화와 안녕 속에 평안히 머물습니다.

감사기도

기도를 마치며, 주님께서 기도 중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기도를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고 성모 마리아께, 내 수호천사나 주보성인께 ... 그리고 내가 관상과 묵상을 통해 얻은 결심을 실행할 힘을 청하고, 아울러 기억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 간구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묵상의 내용을 형제자매들과 나누며 식별의 과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치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계속 성경 말씀을 되풀이 읽거나,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머물습니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도 계속 주님을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청하고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해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그리고 진실히 기도하며 청하면, 언젠가는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02. 묵상기도(주님 생각하기)

묵상은,

- 예수님께서 이 사건/상황을 내가 왜 겪도록 하시는가?
- 예수님께서 이 사건/상황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 예수님께서 이 사건/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

이러한 세 가지 관점에 깊이 잠겨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03. 관상기도(주님 바라보기)

관상기도를 하자면,

- 어느 한 성경구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데에 만족하셔도 좋습니다.
 - 성경구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건드리거나 자극하거나 이끄시는 주님의 말씀이나 행위에 머물러도 좋습니다.
 - 성경구절에 나타난 상황과 등장인물과의 대화와 행위를 자신의 삶과 대비시켜 그 내용을 살피고 자기 삶의 새로운 기준과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처음에 성경구절을 읽으면서 성경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과 상황(배경, 장면)을, 두 번째 읽으면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며, 주님과 등장인물들이 어떻게 말을 주고받고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지 깊이 새겨보고, 세 번째, 자신을 또 하나의 등장인물로 집어넣고 주님과 대화하며 함께 활동하는 것을 처음에는 상상으로 그리다가 점차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면이나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활동을 그려보다가 그 안에 자신을 집어넣고 자신이 주님께 말씀을 건네는 것까지는 상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대응하시고 등장인물들과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대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경구절이 관상하기 힘들거나 내 삶의 상태가 너무 급박하고 번잡하여 관상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그 성경본문을 계속해서 여러 번 읽으면 주님께서 펼쳐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하시면서 기도에 맞들이고 주님을 모시고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04. 복음 나누기 7단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를 따른 복음 나누기

◆ **진행방법** - 구역 반모임을 하는 집주인이 사회를 봅니다. 사회자는 각 단계마다의 굵고 진한 고딕체 글씨만을 읽으며 사회를 봅니다. ()안에 ‘*’표로 시작되는 부분은 복음나누기를 잘하기 위한 설명이므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역, 반의 서기는 대화나눔을 적어 본당에 제출합니다.

0. 시작성가와 성호경

1. 주님을 기도로 초대합니다.

사회자의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부터,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어려우면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 어서 오십시오!”, 또는 “주님, 초대합니다!”라고 고만 기도해도 됩니다.

2.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그날 나눌 과의 ‘말씀’을 구역반원이 전부 펼친 다음에,)

오늘은 제()과 ()쪽의 말씀을 봅니다. 사회자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부터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분부터 계속해서, 성경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경 본문에서 한 구절을 택해 묵상합니다.

사회자의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부터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마음에 와닿은 단어나 짧은 구절을 택해 (네 번씩) 세 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소리를 내어 기도하듯이 읽고, 세 번은 속으로 자기가 그 말씀을 되짚어, 이렇게 네 번씩 세 번 읽습니다. ... *모두 다 한 다음에)

전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 침묵 중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3분 동안 침묵을 지키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자신의 일을 되돌아 보면서, 각자 자기가 선택한 성경의 말씀이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사회자는 시계를 보면서 3분을 잡니다.)

5. 각자 마음 안에 들려온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책에 있는 ‘나눔’을 참고하여, 사회자의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부터 나눕니다.

(*이 모임은 자기 삶을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는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말고, 침묵 중에 자기에게 떠오른 생각을 겸손하고 솔직하게 이야기 합니다.

*다른 분들은, 이야기 하시는 분을 통해, 예수님 말씀이 내마음에 와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듣습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도, 그분의 말씀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6단계에서 말합니다.

*절대로 토론하지 말고,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존경과 애정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듣기만 합니다.)

6. 우리 모임에 주어진 임무에 관해 토의합니다.

(*구역 반장이 진행합니다.)

- 1) 책에 있는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를 다같이 봅시다. 사회자 오른쪽에 앉아계신 분부터 한 항목씩 읽어 나갑시다.

(*이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서로 토론을 하여도 좋습니다. 질문사항은 참석한 수녀님이나 신부님께 여쭙거나, 참석하신 분 중에 답변을 하실 분이 없으면 나중에 구역 반장이 본당에 문의하여 알려줍니다.)

- 2) 5단계의 나눔 중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누어야 할 부분이 있었으면 질문을 통해 서로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다 끝났거나 없으면)

- 3) 지난 모임에서 한 실천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면서 간직하고 싶은 ‘생활 말씀’과 ‘실천약속’을 사회자 오른쪽에서부터 한 사람씩 정합니다. 필요하다면 구역 반원 전체가 함께 할 ‘공동 생활 말씀’과 ‘공동 실천약속’도 정합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 4) 우리가 다룰 안건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5) 다음 모임 날짜와 장소를 청합니다.

7. 자발적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 1) 사회자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부터 돌아가면서 한 분씩 기도합니다.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라고만 기도해도 됩니다.
- 2) 다함께(구역, 반모임을 하고 있는 의)가정을 위해 ‘가정을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
- 3) 끝으로 다같이 손을 잡고 ‘주님의 기도’를 노래로 바칩시다.

◆ 파견강복과 마침성가

(*구역 반장이 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 성자와 성령은 우리 (구역, 반)에 강복하소서.

(*구역 반원들이 응답합니다.)

아멘.

◆ 가정을 위한 기도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구역, 반모임을 하고 있는 ○○○의)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역, 반모임을 하고 있는 ○○○)가 성가정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가정생활의 자람이며 모범이신 성모 마리아와 성 요셉, (구역, 반모임을 하고 있는 ○○○의)집안을 위하여 빌어주시어 모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다가 주님의 은총으로 영원한 천상 가정에 들게 하소서.

◎ 아멘.

구세사 1

구약 성경의 아버지 하느님



1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

교회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고,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의 뒤편에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지를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기에, 세상의 역사를 ‘구세사’라고 명명합니다.

그렇다면, 나(우리)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나(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명확히 느끼고 있습니까?

내(우리) 생애 가장 기뻐던, 슬펐던 순간이나 추억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나눠주십시오.

말씀 이스라엘의 구원(이사 43,1-7)

43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²네가 물 한가운대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네가 불 한가운대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³나는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너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집트를 너의 몸값으로 내놓고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너 대신 내놓는다.

⁴**네가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 대신 다른 사람들을 내놓고

네 생명 대신 민족들을 내놓는다.

⁵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해 뜨는 곳에서 너의 후손들을 데려오고

해 지는 곳에서 너를 모아 오리라.

⁶내가 북녘에 이르리라. ‘내놓아라.’

남녘에도 이르리라. ‘잡아 두지 마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 데려오너라.

⁷**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

내가 빚어 만든 이들을 모두 데려오너라.”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자신의 하느님 체험 소개

1. 위 하느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는지요? 그 구절이 내 지난 과거 어느 일을 연상케 합니까?
2.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혹시 지난 내(우리) 생애의 역사 안에 이성적으로는 풀이할 수 없는 이상하거나 신비한 사건을 겪었는지요?
3. 내 생애의 한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 느낄 만한 사건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기쁘고 슬펐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하셨는지를 되새겨 봅시다.

기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마태 3,17)



2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여기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동네, 친구와 일가친척, 이웃 사이에서 나(우리)를 귀찮게 하고 슬프고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전쟁 같은 사회, 보장되지 않은 불안한 미래, 무능력하고 술주정하는 남편, 탐욕스럽게 자기만 아는 아내, 부모 마음 모르고 속 썩이는 자식, 자기만 바라보는 일가친척, 또 이웃과의 사이에서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기는 오해와 갈등, 불목 등.

내(우리)가 요즘 가장 힘들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의 탈출(탈출 3,7-14)

3 ⁷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⁸그래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⁹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억누르는 모습도 보았다.¹⁰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라.”¹¹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낼 수 있겠습니까?”¹²하느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면, 너희는 이 산 위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것이다.”

¹³모세가 하느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분 이름이 무엇이오?’ 하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하겠습니까?” ¹⁴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말한 어려움을 알고 계실까요?
3.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실까요?
 - 1) 집이나 동네에서 :
 - 2) 학교나 학원에서 :
 - 3) 사회에서, 동료나 친구와 이웃들 사이에서 :

실천약속

이렇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를 골라 실천하기로 약속합니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모른 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의 불평과 신음을 들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첫째, 성조사 – 우리 인간과 함께하시는 하느님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집트 왕의 신임을 받아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어,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제서야 요셉은 하느님께서 자기 가족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를 미리 이집트에 보내신 것임을 깨우쳤고,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통해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하며 거기서 함께 살았습니다(창세기 37장 이후).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고, 사내 아기를 낳으면 바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하소연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시고,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마음이 몹시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인들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하여, 그 땅에서 저 좋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내려왔다.”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둘째, 주 하느님께서서는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라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계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안심시킬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요한 6,20)

그리고 모세에게 힘을 주셔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내라고 하셨습니다(사명). 그러나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모세의 요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느님의 별을 받고서야 이집트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 주었습니다.

셋째, 탈출 사건 – 해방절

하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 다시 추격해 왔습니다(이런 이집트 사람들의 입장을 자기 안에서 본다면 ‘악에 끌리는 경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자유롭게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살 것인가?”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자유’를 선택해 홍해로 뛰어들었습니다. 이를 보신 하느님께서 바다를 가르시어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고, 이집트 사람들을 물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억눌렀고, 또 한편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 매달려 있던 악의 세력(사회악-사회 구조와 굴레)을 없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은총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기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예수님!” 하고 부르신 다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오늘 마음에 와닿은 주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으셔도 됩니다.

⁵¹⁶“언제나 기뻐하십시오. ¹⁷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¹⁸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1테살 5, 16-18)

3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여기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관이 벽에 부딪친 적이 있습니까?

가진 것은 적지만 속편하게 살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저것 다 챙기고 누리면서 언제 무너지고 빼앗길지 몰라 불안해하며 살 것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좌우명처럼 꼭 지키고, 또 한편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십계명(탈출 20,1-17)

²⁰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²“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³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⁴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⁵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삼 대 사 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⁶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⁷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⁸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⁹옛세 동안 일하면서 네 할 일을 다 하여라. ¹⁰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네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¹² 이는 주님이 옛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¹²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¹³살인해서는 안 된다.

¹⁴간음해서는 안 된다.

¹⁵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¹⁶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¹⁷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나귀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위에 나오는 십계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것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실천약속

내가 자주 어기는 계명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키기로 약속해 봅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하느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꼭 지키라고 주신 계명(TORAH-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또한 그 사랑의 길이 인간의 완성과 구원의 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교육하십니다. ‘누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는지’, ‘구원된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또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 명확히 심어 주십니다. 십계명의 내용은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첫째,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송하여라.(인간 존엄과 평등의 근거이신 하느님)

하느님을 믿고 찬미하며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면 하느님이 시고, 안 들어주면 하느님께서 안 계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보다 자기에게 좋고 편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셨으니 하느님만을 섬겨야 하고, 다시는 누구도 다른 인간에게 지배당해서는 안 되며 다른 인간을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만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거나 무시하고 미워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여야 합니다.

둘째,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를 위해 하느님을 파는 거짓 맹세 등으로 하느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느님을 믿어서 그렇게 바르게 사는구나!” 할 정도로 삼시다.

셋째,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주일(일요일)은 하느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지난 한 주간을 잘 지내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오는 한 주간을 기쁘고 사랑 가득한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일은 힘있게 다시 일하기 위해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 친척을 찾아가 인사하고 돌보는 날입니다.

넷째,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 순종과 공경, 권위에의 인정, 그리고 사랑.

다섯째,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또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모상(영,

얼, 모습)을 심어 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용하려 하거나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과 불의를 저지르고 이웃의 고통을 모른 채하면 간접 살인에 해당됩니다.

여섯째, 간음하지 마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과 가정 생활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좋은 것을 넘어, 인격적인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아울러 무절제한 사랑으로 태어나는 아기의 인권과 생명의 고귀함이 손상되지 않기를 바라며(낙태 금지), 각자 스스로의 때를 채우고 기다리는 노력으로 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일곱째, 도둑질을 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을 자기가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가거나, 줄 것을 주지 않거나, 몰래 가져간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자유와 사랑을 무시하고 가로채는 것이 됩니다. 이 계명은, 7년마다의 안식년과 7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해인 희년에 담보 잡힌 각종 소유권과 지배권을 해소시켜 해방되게 합니다. 이는 가난하고 억울한 이를 되살리는 규정입니다(레위기 25장 참조).

여덟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나를 위해 다른 사람 핑계를 대거나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이 대신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 증언은 죽음의 벌을 받아 마땅한 거짓말을 가리킵니다.

아홉째, 열째,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내가 어려워도 함께 사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부모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친구들과 이웃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너와 내 안에 있는 악을 없애기 위해 노력은 하되, 인간을 미워하지는 맙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자제하며 인격적인 성숙을 맞이합시다.

*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에서 제시하는 길을 걸어 나갈 때, 나와 우리가 하느님께로 나가게 됩니다.

기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4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여기

자연을 보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까? 우주와 지구 그리고 사람의 기원과 생성에 대해 배우거나,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나(우리)는 언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기의 맑은 눈동자를 보았습니까? 세상이 언제 보기 좋고 또 언제 보기 싫은가요? 세상이 언제 고맙고 또 언제 원망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생명을 주고 죽음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이며,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사회, 이 인류를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천지 창조(창세 1,1-2,4)

1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²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³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4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⁵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⁶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⁸하늘... ⁹땅, ¹⁰바다, ¹¹풀과 과일 나무... ¹⁴해, 달, 별... ²⁰물고기, 새... ²⁴동물... **25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²⁶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²⁷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²⁸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²⁹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³⁰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31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셋날이 지났다.

2 '이렇게 하늘과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²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렛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 **3하느님께서 이렛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⁴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 그 생성은 이러하였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오늘날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살리는 것(또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것(또는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실천약속

세상을 살리는 일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첫째, 성경은 세상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자와 역사학자들의 일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누가 있게 했느냐’를 알리는 신앙의 진리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2장 4절에 나오는 창조의 방법(말씀으로 창조)과 2장 5절부터 25절까지에 나오는 창조의 방법(인간을 진흙으로 빚어 만드신 후 숨을 불어넣으심)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그대로 기록한 것은 창조 방법이 아니라 창조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경은 “하느님께서 최고의 신이심”을 강조합니다. 창세기는 그동안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이집트나 바빌론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 즉 ‘해’와 ‘별’도 우리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한때 힘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이스라엘같은 약한 민족이 강하고 잘 사는 것을 보면, ‘주 하느님께서 참 하느님이시다!’라고 말하게 되리라”는 신앙 고백이 덧붙여 있습니다.

셋째,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_____’라고 말씀하시자 (‘_____’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대로 되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 만물과 하느님의 생명을 나누기 위해 지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느님의 모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이란 하느님의 뜻과 마음과 사랑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좋은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결혼하여 부부의 사랑을 통해 자녀를 낳고,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을 이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속합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서 하느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참여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마지막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됩니다.

기도 주님을 찬양하여라(시편 148,1-14)

148 ¹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로부터.

주님을 찬양하여라, 높은 데에서.

²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천사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모든 군대들아.

³주님을 찬양하여라, 해와 달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반짝이는 모든 별들아.

⁴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 위의 하늘아

하늘 위에 있는 물들아.

⁵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저들이 창조되었다.

⁶그분께서 저들을 세세에 영원히 세워 놓으시고

법칙을 주시니 아무도 벗어나지 않는다.

⁷주님을 찬미하여라, 땅으로부터.

용들과 깊은 모든 바다들아

⁸불이며 우박, 눈이며 안개

그분 말씀을 수행하는 거센 바람아

⁹산들과 모든 언덕들

과일나무와 모든 향백나무들아

¹⁰들짐승과 모든 집짐승

길짐승과 날짐승들아

¹¹세상 임금들과 모든 민족들

고관들과 세상의 모든 판관들아

¹²총각들과 처녀들도

노인들과 아이들도 함께

¹³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 이름 홀로 높으시다.

그분의 엄위 땅과 하늘에 가득하고

¹⁴그분께서 당신 백성 위하여 뿔을 세우셨으니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당신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찬양 노래이어라.

할렐루야!

셈터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너, 왜 화가 나 있니?”

“응,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그래!”

“세상을 돈 주고 사 버리지 그래! 세상을 사 버려!”

“뭐? 너 미쳤니? 너 누구 약 올려?”

“미치긴 누가 미쳐? 네가 만들지도 않았고, 네 것도 아닌 세상이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당연하지!”

“.....”

5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여기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입김을 불어넣어 숨을 쉬게 하셨습니다. 나는 요즈음 하느님의 영을 받아 생기 있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이웃과 주변 사물에 이름을 붙여주고, 아끼고 사랑하며 돌보고 있습니까?

말씀 아담과 하와(창세 2,4-9. 15-25)

2 ⁴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⁵땅에는 아직 들의 덩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⁶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⁷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⁸주 하느님께서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⁹주 하느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¹⁵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¹⁶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¹⁷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¹⁸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¹⁹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²⁰이렇게 사람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²¹그래서 주 하느님께서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²²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²³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로 불리리라.”

²⁴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²⁵사람과 그 아내는 둘 다 알몸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 삶이 생기가 없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왜 그렇습니까?

실천약속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첫째, 창세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제각기 다르게, 또한 그것에 알맞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입김을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여 숨쉬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보실 때마다 “보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좋은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만들어진 좋은 것입니다.

사람도 하느님의 창조물(피조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느님의 모상을 심어 주셔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불완전하지만, 언제나 하느님의 마음과 생각과 사랑을 기억하고 되새겨, 자기 자신과 세상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선하게 창조된 사물은 선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이고 단지 우리는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소유권(점유권적 관리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을 관리할 때,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찾고 헤아려 그 만드신 목적과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창조된 세계는 하느님께서 지배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지배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뜻과 마음대로 세상이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불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물론 그렇다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하느님께서 인간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느님과 조화는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육체와 영혼이 한 몸으로 조화를 이루어 진정한 인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2코린 6,16)

인간은 이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도우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웃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웃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웃을 통해 나의 약함이 드러나는 동시에, 하느님의 은총이 다가온다는 것을 겸손되이 고백합니다.

인간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자연을 이용할 때 하느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셋째,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하느님의 모상(하느님의 생각과 마음, 사랑)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고 구원하는 일을 계속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느님과 함께 세상을 만들고 구원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기도 주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시편 100,1-5)

100 ¹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²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³너희는 알아라, 주님께서 하느님이심을.

그분께서 우리를 만드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 떼이어라.

⁴감사드리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드리며 그분 앞뜰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을 찬미하여라.

⁵주님께서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며

그분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6 너 어디 있느냐

여기

내가 지금보다 더 잘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친구들이나 부모님, 배우자의 부탁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친구나 동료들에게 버림받은 적이 있습니까? 빗보중 섰다가 떼이고 대신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원망과 수치감으로 들끓은 적이 있습니까?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 있습니까?

삶이 기쁘고 보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하다(창세 2,15-17; 3,4-19)

2 ¹⁵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데려다 에덴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¹⁶그리고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¹⁷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3 ⁴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⁵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⁶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⁷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⁸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⁹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⁰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¹¹그분께서 “네가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 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 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¹²**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¹³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꺾어서 제가 따 먹었습니다.**”

¹⁴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에서 저주를 받아

네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 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¹⁵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¹⁶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들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¹⁷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¹⁸땅은 네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¹⁹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 참고 : 카인과 아벨 이야기 – 이기주의, 질투(창세 4,1-16)
노아의 방주 이야기 – 죄와 벌 이야기(창세 6,5-8)
바벨탑 이야기 – 집단 이기주의(창세 11,1-9)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부모님의 말씀이나, 내 마음속에서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양심에 가책이 되는) 저질렀던 죄에 대해 되새겨 봅시다.
 - 1) 무슨 일이었습니까?
 - 2) 왜 그랬습니까?
 - 3)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 4) 그 일이 지금 나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실천약속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기쁘고 보람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할 때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떠나고 하느님의 사랑을 저버릴 때 인간은 인간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죄와 벌입니다.

첫째, 인간이 처음 지은 죄는 ‘교만’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유혹했습니다. “너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인간에 불과하지만, 저 ‘선과 악을 아는(구분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과 같아지고 싶었습니다. 하느님처럼 완전히 생각하고 소유하고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느님처럼 한계도 없고, 모든 것을 지배할 능력과 권한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수치심(자기들이 알몸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을, 즉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는 두려워서 하느님으로부터 숨고 떠나게 됩니다.

인간은 핑계를 대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느님께서 물으시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고 너, 유혹 때문이라고…….”

인간은 죄의 결과로 평화를 잃는 벌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은 죽도록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도록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을 받고, 남편을 주도하려 하지만 남편의 손아귀 안에 잡히리라는 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흙에서 흙으로, 즉 죽음을 선고받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낱알을 얻어먹으리라는 벌을 받습니다. 아담의 벌을 보면, 하느님께서 (흙을 빚어) 만드시고 입김을 불어넣어 숨을 쉬게 하신 인간에게서, 숨을 거두어들여 다시 흙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또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따먹고 대자연과 어울리던 생활이 없어지고, 이제는 먹고살기 위해 고생해야 한다는 것입니

다. 즉, 노동이 기쁘고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 하는 것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땅은 저주하시지만, 인간은 용서하실 만큼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십니다.

둘째, 죄는 하느님과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느님을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맞이합니다. 하느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죄는 동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와(인간)는 뱀(자연)을 핑계대면서 원망합니다. 아담(인간)은 하와(동료인간)를 핑계대면서 원망합니다.

죄는 인간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인간)는 자신이 누리던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은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생명을 박탈당하게 됩니다(죽습니다).

셋째, 아담과 하와의 첫 범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의 결과(위 ‘둘째’)는 유전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별받은 세상에 살게 됩니다. 인간은 사회 안에서 서로 유혹을 하고 유혹을 받으며,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서 상처받고 또 상처를 주며 삽니다(인간의 사회성과 죄의 연대성).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악의 상태에 있으면, 그 주위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영향으로 괴로워하게 됩니다(예 : 부부 싸움과 가출 청소년, 환자와 그 우울한 가족들). 이런 인간과 사회의 특성이 현대 세계 안에서도 ‘원죄의 유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인간은 죄로 하느님과 멀어졌지만, 하느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더 인간에게 맞춰 배려해 주십니다(나뭇잎 옷 대신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또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구세주를 보내 주시겠다는 희망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3,15) 라는 구절에서 살펴 보듯이, 인간은 죄의 유혹과 악의 세력에서 구원될 수 있으며, 인간을 구원할 여자(마리아)의 후손, 구세주(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이 첫 번째 기쁜 소식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기도 하느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시편 51,3-21)

- 51 ³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의 죄악을 지워 주소서.
⁴저의 죄에서 저를 말끔히 씻으시고
저의 잘못에서 저를 깨끗이 하소서.
⁵저의 죄악을 제가 알고 있으며
저의 잘못이 늘 제 앞에 있습니다.
⁶당신께, 오로지 당신께 잘못을 저지르고
당신 눈에 악한 짓을 제가 하였기에
판결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의로우시고
심판을 내리시더라도 당신께서는 결백하시리이다.
⁷정녕 저는 죄 중에 태어났고
허물 중에 제 어머니가 저를 배었습니다.
⁸그러나 당신께서는 가슴속의 진실을 기뻐하시고
남모르게 지혜를 제게 가르치십니다.
⁹우슬초로 제 죄를 없애 주소서. 제가 깨끗해지리이다.
저를 씻어 주소서, 눈보다 더 희어지리다.
¹⁰기쁨과 즐거움을 제가 맛보게 해 주소서.
당신께서 부수셨던 뼈들이 기뻐 뛰리이다.
¹¹저의 허물에서 당신 얼굴을 가리시고 저의 모든 죄를 지워 주소서.
¹²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제게 만들어 주시고
굳건한 영을 제 안에 새롭게 하소서.
¹³당신 면전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소서.
¹⁴당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시고

순종의 영으로 저를 받쳐 주소서.

- ¹⁵제가 악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죄인들이 당신께 돌아오리이다.
¹⁶죽음의 형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하느님, 제 구원의 하느님
제 혀가 당신의 의로움에 환호하오리다.
¹⁷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당신의 찬양을 널리 전하오리다.
¹⁸당신께서는 제사를 즐기지 않으시기에
제가 번제를 드려도 당신 마음에 들지 않으시리이다.
¹⁹하느님께 맞갖은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꺾인 마음을
하느님, 당신께서는 업신여기지 않으십니다.
²⁰당신의 호의로 시온에 선을 베푸시어
예루살렘의 성을 쌓아 주소서.
²¹그때에 당신께서 의로운 희생 재물을, 번제와 전번제를 즐기시리이다.
그때에 사람들이 당신 제단 위에서 수소들을 봉헌하리이다.

7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기

하느님께서 지금의 나와 나의 가족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한편 사람들은 나와 나의 가족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께서 지금의 우리 사회를 보시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 한 사람이 만족하며 살기 위해 다른 이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합니까? 내 기쁨이 다른 이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한순간의 기쁨이 내 삶을 통해 계속 기쁨으로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 나탄이 다윗을 꾸짖다(2사무 12,1-15)

12 ¹주님께서 나탄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나탄이 다윗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난했습니다.²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³가난한 이에게는 자기가 산 작은 암양 한 마리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난한 이는 이 암양을 길렀는데, 암양은 그의 집에서 자식들과 함께 자라면서, 그의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의 잔을 나누어 마시며 그의 품 안에서 자곤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암양이 딸과 같았습니다.⁴그런데 부자에게 길손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찾아온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양과 소 가운데에서 하나를 잡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을 잡아 자신을 찾아온 사람을 대접하였습니다.”

⁵다윗은 그 부자에 대하여 몹시 화를 내며 나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한, 그런 짓을 한 그자는 죽어 마땅하다.⁶그는 그런 짓을 하고 동정심도 없었으니, 그 암양을 네 갑절로 갚아야 한다.”⁷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해 주었다.⁸나는 너에게 네 주군의 집안을, 또 네 품에 주군의 아내들을 안겨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안을 주었다. 그래도 적다면 이것저것 너에게 더 보태 주었을 것이다. ⁹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기에 악한 짓을 저질렀느냐? 너는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칼로 쳐 죽이고 그의 아내를 네 아내로 삼았다. 너는 그를 암몬 자손들의 칼로 죽였다.¹⁰그러므로 이제 네 집안에서는 칼부림이 영원히 그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데려다가 네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¹¹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거슬러 너의 집안에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겠다. 네가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너의 아내들을 데려다 이웃에게 넘겨주리니, 저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너의 아내들과 잠자리를 같이할 것이다.¹²너는 그 짓을 은밀하게 하였지만, 나는 이 일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앞에서, 그리고 태양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할 것이다.’”

¹³그때 다윗이 나탄에게.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소.”** 하고 고백하였다. 그러자 나탄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임금님께서 돌아가시지는 않을 것입니다.¹⁴다만 임금님께서 이 일로 주님을 몹시 업신여기셨으니, 임금님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¹⁵그러고 나서 나탄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 내 삶의 형태와 사회상에 다가서는데, 방해가 되는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 중에 내가 치울 수 있는 장애물은 무엇이고 치울

수 없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실천약속

내가 오늘 여기서 하느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언자는 그 자리와 상황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첫째, “지금 바로 여기”, 이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를 두려움 없이 전하는 이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예누리 없이 그 시대 그 상황에 전해야 하며,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도 전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둘째, 예언자는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앞일을 내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 시대, 그 자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셋째, 구약 성경 안에서 ‘왕’의 삶은 당대 백성의 생활상을 대표합니다. 그러므로 왕에 대한 예언자의 질책은 곧 당대 백성들에 대한 질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처음 예언자들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을 때에는, 예외 없이 자신은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다고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느님의 소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의 많은 예언자들은 시대에 대해 질책함으로써, 당대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미움과 버림을 받아 억울하게 죽어 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들은 계속해서 등장했고, 하느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당신의 힘과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하느님을 믿는 이들은 언제나 자기가 사는 그 자리와 그 시간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즉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옳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안 되는지를 사회에 외쳐야 합니다. 이를 ‘예언직’이라 합니다. 1970년대 천

주교의 대사회 발언은 ‘정치에의 간섭’이 아니라 예언직의 수행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무도 불의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때, 교회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교회는 인간 삶에 대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침묵하는 것 역시 찬성한다는 의미의 참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

2 ¹“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를 받고 사랑에 찬 위로를 받으며 성령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애정과 동정을 나눈다면, ²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³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⁴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필리 2,1-4)



8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은 어떤 것입니까?

또 내 자유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는 하느님은 누구이며, 그 하느님께 무엇을 바랍니까?

말씀

정의로우실 뿐 아니라 자비로우시고 가련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창세 4,1-5,8-11)

4'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하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내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²그 여자는 다시 카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기가 되고 카인은 땅을 부치는 농부가 되었다.³세월이 흐른 뒤에 카인은 땅의 소출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⁴아벨은 양 떼 가운데 만배들과 그 굳기름을 바쳤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꺼이 굶어보셨으나, ⁵카인과 그의 제물은 굶어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카인은 몹시 화를 내며 얼굴을 떨어뜨렸다.

⁸카인은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⁹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¹⁰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 보아라.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¹¹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네 손에서 네 아우의 피를 받아 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가 아는 하느님과, 지금까지 교리에서 배운 하느님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실천약속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느님께 도와 달라고 함으로써, 하느님을 마치 자신의 보물 창고처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느님께 무엇을 바라고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인간의 성숙에 따라 신관이 변화되고 그에 따라 또 삶이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해방된 후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일을 겪게 됩니다. 그 때마다 자기들과 함께해 주시는 하느님을 새롭게 체험하면서 다시금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자신들과 함께해 주시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사주고 들어주어야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차츰 커가면서 부모님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느님과 우리 관계는 마치 부모님과 의 관계가 보호자에서 동반자로, 오히려 협조자로 바뀌어 가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첫째, 해방자 하느님 -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소수 유목민족인 이스라엘은 항상 강한 민족의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위협을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쉽사리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그러한 위협을 당할 때마다 하느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위협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주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신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자신들이 위협을 당할 때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둘째,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느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느님이야말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하느님이시며,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야말로 자신들을 세상에 낳으신 분이시고,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셋째,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

한편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민족이 번번이 승리하는 것을 본 이웃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승리의 하느님’, ‘전쟁의 하느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게 되자 가나안 족들은 자신들의 신이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신’이라고 주장하며 “너희의 신은 어떤 분이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이 내세우는 정의의 기준은 자기네 사회의 문화·풍습과 맞느냐 안 맞느냐,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자신들의 처지를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하느님의 정의는 나약하고 가련한 인간에게 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자비’라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의 하느님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시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굶주리고 가련하며 약한 이들을 굶어보시는 하느님’이시다.” 라고 더 깊숙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느님, 군대들의 주님, 계약의 궤

〈신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신앙 생활의 변화〉

	카 인(가나안 정착 이후)	아 벨(이스라엘의 전통 생활상)
문화	농경문화, 개인일터, 개인소득, 개인소유	유목문화, 공동일터, 공동소득, 공동소유, 공동분배
신관	정의(롭게 심판하시는)의 하느님	정의로우시지만 한편, 가련하고 약한 이들을 모른 채하지 않으시고 굶어보시는 하느님
신앙 생활 양식	내가 일해 번 돈으로 내가 산다. - “내가 아우(가난한 이들을)를 돌보는 사람입니까?”	내가 일한 대가를 함께 나누고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 - 고아나 과부, 노인, 병자 및 나그네도 함께 산다.

기도

6³¹“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³²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³³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1-33)

쉽터

어떤 두 사람이 싸우고 난 뒤 하느님께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 사람(회사, 나라)이 (이러 이러한 점에서) 회개하여 (내 말을 듣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느님께서서는 이 둘 중 어느 편의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한 사람의 기쁨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전제와 조건으로 한다면, 하느님께서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요?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 주기 위해 계신 것일까요?

9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피보시어 아십니다

여기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느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등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는지……

지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느님께서 함께하셨는지 되돌아봅시다.

말씀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피보시어 아십니다.(시편 139,1-18.23-24)

139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피보시어 아십니다.**

²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³제가 길을 가도 누워 있어도 당신께서는 헤아리시고

당신께는 저의 모든 길이 익숙합니다.

⁴정녕 말이 제 혀에 오르기도 전에

주님, 이미 당신께서는 모두 아십니다.

⁵뒤에서도 앞에서도 저를 에워싸시고

제 위에 당신 손을 얹으십니다.

⁶저에게는 너무나 신비한 당신의 예지

너무 높아 저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⁷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신 얼굴 피해 어디로 달아나겠습니까?

⁸제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당신 계시고

저승에 잠자리를 펴도 거기에 또한 계십니다.

⁹제가 새벽놀의 날개를 달아

바다 맨 끝에 자리 잡는다 해도

¹⁰거기에서도 당신 손이 저를 이끄시고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잡으십니다.

¹¹“어둠이 나를 뒤덮고

내 주위의 빛이 밤이 되었으면!” 하여도

¹²암흑인 듯 광명인 듯

어둠도 당신께는 어둠이 아니고

밤도 낮처럼 빛납니다.

¹³정녕 당신께서는 제 속을 만드시고

제 어머니 배 속에서 저를 엮으셨습니다.

¹⁴**제가 오묘하게 지어졌으니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조물들은 경이로울 뿐.

제 영혼이 이를 잘 압니다.

¹⁵제가 남몰래 만들어질 때

제가 땅 깊은 곳에서 짜여질 때

제 뼈대는 당신께 감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니다.

¹⁶제가 아직 태아일 때 당신 두 눈이 보셨고

이미 정해진 날 가운데

아직 하나도 시작하지 않았을 때

당신 책에 그 모든 것이 쓰여졌습니다.

¹⁷**하느님, 당신의 생각들이 제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것들을 다 합치면 얼마나 웅장합니까?

¹⁸**세어 보자니 모래보다 많고**

끝까지 닿았다 해도 저는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²³하느님, 저를 살피보시어 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²⁴제게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어

저를 영원의 길로 이끄소서.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우리의 지난날을 나눠 봅시다.
(내 생애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되돌아봅시다.)
2.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의 삶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셨는지 음미해 봅시다.
3. “내가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 줍시다.
4. 시편 139편을 읽고 내 마음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기도

돌아가면서 각자 자신의 일생에 함께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바칩시다.

10 모든 것이 허무로다

여기

아이들이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물으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파악하고 정리된 세상살이는 어떤 것입니까?

지난 생애 중 내가 풀지 못한 불가사의한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의 내 생애를 되돌아볼 때, 하느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떻게 이끌어 오셨다고 느끼십니까?

말씀 모든 것이 허무로다.(코헬 1,2-3; 3,1-22)

1 ²허무로다, 허무!

코헬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³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3 ¹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²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³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⁴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뿔 때가 있다.

⁵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⁶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 버릴 때가 있다.

⁷찢을 때가 있고

꿰매는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⁸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⁹그러니 일하는 사람에게

그 애쓴 보람이 무엇이겠는가?

¹⁰나는 인간의 아들이 고생하도록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일을 보았다.

¹¹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 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¹²인간에게는 살아 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¹³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¹⁴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탬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¹⁵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¹⁶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보았다.

공정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있음을.

¹⁷나는 속으로 말하였다.

‘의인도 악인도

하느님께서 심판하시니

모든 일과

모든 행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¹⁸나는 인간의 아들들에 관하여
속으로 생각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어
그들 자신이 다만 짐승일 뿐임을 깨닫게 하신다고.

¹⁹사실 인간의 아들들의 운명이나
짐승의 운명이나 매한가지다.
짐승이 죽는 것처럼 인간도 죽으며
모두 같은 목숨을 지냈다.
인간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이기 때문이다.

²⁰모두 한곳으로 가는 것.
모두 흠으로 이루어졌고
모두 흠으로 되돌아간다.

²¹인간의 아들들의 목숨이 위로 올라가는지
짐승의 목숨이 땅 아래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리오?

²²그래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누가 그를 이끌어 줄 수 있으리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또 어떻게 어느 곳으로 이끌고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실천약속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어렵풋이나마 느껴진다면, 어떻게 하느님의 이끄심에 응답할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인간 경험의 결론은 하느님의 뜻에 있습니다. 인간이 실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느끼고 체득한 생각과 경험 속에서 바라본 인간의 생애와 세계,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느님. 그 하느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첫째, 인간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인간은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지난 생애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능하고 지혜를 갖추고, 외적으로 보이는 부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노력하면 분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얻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교과서나 다른 어디에서 인생을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나름대로의 경험이 있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둘째,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 결과 어떤 무엇인가를 경험했다고 느끼면서도, 아쉽게도 결국에 가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하고 생각해 온 대로 되지 않는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느낍니다.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산다는 것도, 하느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모든 것이 헛되

다라는 것을 생의 순간순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셋째,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사는 거지!” 또는 “적당히 사는 거야!”라고 말해 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생애와 삶의 문제를 단순한 인과응보나, 해결책과 해답을 찾지 못하니까 막연하게 운명이나 운세에 돌리고 맙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에 의해 또는 사회의 변화에 의해 손해를 보거나 실패한 것처럼 될 때, 실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인간과 세상사를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 그 너머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종할 수도 완전히 알아들을 수도 없는 분이시지만, 거듭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께서 마련해 주시는 인간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허탈감과 무상함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내맡기고 살아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기도

13 ¹²“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¹³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2-13)

11 내가 태어난 날

여기

세상은 공평합니까?

정직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습니까?

나쁜 일을 일삼는 사람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억울하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말씀 억울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충신했던 욥(욥 1,8-12,20-22; (2,5-7,10); 3,1-3,11.; 4,1,7; 6,1-2,24-25; 7,7,18; 38,1-2; 40,7-8; 42,1-3,10,16-17)

1 ⁸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 욥을 눈여겨보았느냐? **그와 같이 흠 없고 올곧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⁹ 이에 사탄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¹⁰당신께서 몸소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으로 울타리 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내리셔서, 그의 재산이 땅 위에 넘쳐 나지 않습니까? ¹¹그렇지만 당신께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사탄의 두 번째 시험 - 2⁶뿔와 살을)를 쳐 보십시오. 그는 틀림없이 당신을 눈앞에서 저주할 것입니다.” ¹²그러자 주님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종다, 그의 모든 소유(2⁶그)를 네 손에 넘긴다. 다만 그에게는(2⁶목숨) 손을 대지 마라.” 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2⁷이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 나와, 욥을 발바닥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고약한 부스럼으로 쳤다).

²⁰그러자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²¹말하였다.

“알몸으로 어머니 배에서 나온 이 몸

알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라.



주님께서 주셨다가 주님께서 가져가시니

주님의 이름은 찬미받으소서.”

²²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옴은 죄를 짓지 않고 하느님께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2 ¹⁰그러자 옴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미련한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하느님에게서 좋은 것을 받는다면, 나쁜 것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소?”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옴은 제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3 ¹마침내 옴이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 앞에서) 입을 열어 제 생일을 저주하였다.

²옴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³차라리 없어져 버려라, 내가 태어난 날,

“사내아이를 배었네!” 하고 말하던 밤!

¹¹어찌하여 내가 태중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숨지지 않았던가?

4 ¹테만 사람 엘리파즈가 말을 받았다.

⁷“생각해 보게나, 죄 없는 이 누가 멸망하였는가?

울곧은 이들이 근절된 적이 어디 있는가?”

6 ¹옴이 말을 받았다.

²“아, 누가 제발 나의 원통함을 저울질해 보고

나의 불행도 함께 저울판에 달아 보았으면!

²⁴나를 가르쳐 보게나, 내가 입을 다물겠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깨우쳐 보게나.

²⁵바른말이 어떻게 속을 상하게 할 수 있나?

자네들은 무엇을 탓하고 있나?

7 ⁷기억해 주십시오, 제 목숨이 한낱 입김일 뿐임을.

제 눈은 더 이상 행복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¹⁸아침마다 그를 살피시고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십니까?”

38 ¹주님께서 옴에게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

²“지각없는 말로

내 뜻을 어둡게 하는 이자는 누구냐?

40 ⁷사내답게 허리를 동여매어라.

너에게 물을 터이니 대답하여라.

⁸네가 나의 공의마저 깨뜨리려느냐?

너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나를 단죄하려느냐?”

42 ¹그러자 옴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²“저는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음을,

당신께는 어떠한 계획도 불가능하지 않음을!

³당신께서는 “지각없이 내 뜻을 가리는 이자는 누구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신비로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껄였습니다.”

¹⁰주님께서 옴이 전에 소유하였던 것을 갑절로 더해 주셨다.

¹⁶그 뒤 옴은 백사십 년을 살면서, 사 대에 걸쳐 자식과 손자들을 보았다.

¹⁷이렇게 옴은 늙그막까지 수를 다하고 죽었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나는 왜 이런 어려움과 억울함을 겪고 있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속에서 하느님께서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실천약속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인간의 고통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인간의 신비입니다. 인간은 오히려 고통을 받아들이고 참여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계명에 충실하기만 하면 모두 복을 받고 구원된다(상선 별약)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오히려 고생하며 살게 되고, 악한 사람이 오히려 선한 사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평평거리고 살아가는 현실이 종종 벌어집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이런 부정한 현실이 생기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둘째, 인과응보의 법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사람들은 인간의 고통이 잘못 살았거나, 죄를 지은 결과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자 제자들은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하고 물었다”(요한 9,2). 우리도 가끔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는 식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요한 9,3)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이, 선하게 살면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는 전통적인 원인

과 결과의 원칙(인과응보의 법칙)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셋째, 성경은 하나의 ‘커다란 고통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기와 자기 자식들, 특히 맏아들과 외아들의 죽음, 후손의 결핍, 고국에 대한 향수, 주위 환경의 박해와 적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조롱과 경멸, 고독과 소외감, 양심의 가책, 왜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친지들과 이웃들의 불성실과 무례함 그리고 자기 동족의 비운 등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어떤 종류이든 악을 경험할 때’마다 고통을 겪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고통과 악이 서로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존재적으로 선하다고 규정합니다(이하 회칙 ‘구원에 이르는 고통’ 참조).

넷째, 고통을 겪는 인간은 “왜?”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흔히 바로 세상에서부터 인간에게로 고통이 오고 있는 데도, 인간은 이 물음을 세상을 향해 묻지 않고, 세상의 창조자이며 주인이신 하느님께 묻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의 고통을 그 인간이 지은 죄의 벌로 이해해 왔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통을 겪는 것을 허락하실 뿐이라는 사실을 읊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욥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심 - 욥 1,12; 2,6 참조). 그러므로 한편 고통받는 욥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수난을 예고합니다.

다섯째, 구원은 악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의 악을 제거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별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이사 53,4_ㄷ.6_ㄷ) 그러므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연다고 할 수 있으며,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고통스러운 수난을 겪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자신들이 겪는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

하여 겪으시고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골로 1,24 - 사도 바오로의 고통관)라고 믿고 자기에게 닥친 고통을 끌어안음으로써 자신과 세상의 구원 사업에 참여합니다.

여섯째, 인간 고통의 세계는 인간다운 사랑의 세계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인간을 발견할 때마다 모든 개인 각자가 고통 속에서 사랑을 증거하도록 ‘직접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느끼고, 그 고통 앞에 ‘멈춰 서서’ 그 부르심에 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채우는 삶입니다.

천주교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내려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하느님의 복을 빌어주고 더 나아가 이웃의 잘못과 죄로 인한 피해를 대신 겪고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

5³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⁴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⁵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로마 5,3-5)

구세사 2

신약 성경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12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여기

하느님께서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또 어떤 역할을 맡아 주기를 바라십니까? 혹시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치 않더라도 생각하고 느낀 대로 이야기해 봅시다.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고(루카 1,26-38)

1 ²⁶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²⁷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²⁸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²⁹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³⁰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³¹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³²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³³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³⁴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³⁵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³⁶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³⁷**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³⁸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해야 할 것’(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 사이에서 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 ‘내 고민표’를 작성하면서 함께 걱정해 봅시다.

실천약속

지금 내 상황과 처지에 맞춰, 내가 지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 약속하고 기도하며 실천합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협조자로 선택하십니다.

첫째, 하느님께서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 줄 어머니가 필요했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신실한 처녀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당황했지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서는 성령의 힘으로 마리아에게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잉태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겸손하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임(순명)으로써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은총은 축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 당시의 풍습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은 은총의

성격이나 관점이 받아들이는 사람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하느님 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느님의 은총은 은총을 받는 자기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들은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것이 비정상적인 사건이라도 그 사건을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시고 또 어떻게 하라고 인도하시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기도 성모송 풀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루카 1,28 -마리아를 방문한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말)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루카 1,42 -엘리사벳이 자기를 방문한 마리아를 보며 부른 노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께 바치는 교회의 청원 노래

***아멘.**

13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여기

내 꿈과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존경받는 조건입니까?

구세주(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표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이 구세주의 모습이겠습니까? 당신이 구세주로 세상에 오신다면 어느 신분으로,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말씀 구세주의 고 약한 탄생(루카 2,1-16)

2 ¹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²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³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⁴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⁵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⁶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⁷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⁸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⁹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¹⁰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¹¹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¹²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¹³ 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¹⁴“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¹⁵천사들이 하늘로 떠나가자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¹⁶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주님의 공현(마태 2,1_ㄴ-2.5.9-11)

2 ¹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²“유대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⁵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⁹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¹⁰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초라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

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특별히 내 꿈과 희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실천약속

내가 어떻게 살면 아기 예수님께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약속 합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께서서는 구유(먹이통)위에서 포대기에 싸여 가냘프고 나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하고 어려움에 허덕이는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더 가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첫째,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처럼 배고프고, 졸리고,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는 인간이 되심으로써, 하느님으로서 누리시는 모든 권능을 다 포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2코린 8,9_ㄴ).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랑이라는 빛으로, 가진 것 없고 약한 우리를 환하게 비춰 주십니다.

둘째, 구약 성경에서 예언자들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유흥과 악을 상징하는 뱀에게는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고 하였고, 인류 전체에게는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이라 할 것입니다.”(이사야 7,14)와) “그러나 너 예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

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미카 5,1-3; 마태 2,5-6)는 예언을 해주어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공현). 사람들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 죄를 짓고 도망친 사람들이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의심받았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으로서 별을 보고 구세주의 탄생을 알아볼 수 있었던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사였지만 진리이신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겸손하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넷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선물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는 선물이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고, 하늘과 땅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며, 유향은 기도의 상징으로써 하느님께만 드리는 예물이며, 몰약은 죽음과 장례 때 쓰는 귀중한 예물로써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예물입니다.

기도 관상 기도

이제 모두 눈을 감고 상상해 봅시다.

밤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중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길을 비춰 주는 큰 별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서 우리를 비춰주시는 그 별빛을 따라 동방 박사와 함께 그 길을 찾아 나가십시오.

사방은 캄캄한데 예수님께서서 태어나신 마구간에서 빛이 비춰 오고 있습니다.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를 만나 인사드리십시오.

“저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러 왔습니다!”

이제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가 인도하는 데로 따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보십

시오.

아기 예수님께서서는 포대기에 싸여 말구유에 누워 생긋생긋 웃으면서 우리를 바라보고는 말씀하십니다.

“어서 와라!”

자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보십시오.

“예수님! 저 왔습니다!

저는 _____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서 우리를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그 눈길에 편안히 잠겨 마음껏 머물러 계시다가 우리 마음의 다짐을 선물로 드리고 나오십시오.

14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여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 세례 받으시는 예수(마태 3,1-4.8.13-17)

3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²“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³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⁴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 꿀이었다.

⁸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¹³그때에 예수님께서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¹⁴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¹⁵예수님께서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¹⁶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

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¹⁷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어떤 때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도 오해와 싸움이 벌어지고, 내 마음이 괴롭기까지 합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이 옳다고 믿어서,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드러낼 만한 회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 생활 안에서 찾아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실천약속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시며 공생황을 시작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30세가 되어 ‘때가 차자’ 죄가 없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한을 찾아가 죄인들 틈에 끼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기꺼이 선택하시고, 또 아버지는 아들의 선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의 일치를 확인하게 됩니다(“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

둘째,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하느님을

사랑하여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과 '사랑의 하느님'을 뵈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라."는 등의 당위나 윤리 의식에 의한 하느님 의식이나, "다시 죄 지으면 혼난다."는 등의 감시하고 심판하시는 하느님 의식이나, 집중하지 못하거나 난잡하거나 하느님께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하느님을 무감각하게 체험하게 되는 등 비정상적인 하느님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셋째, 세례는 물로 씻는 예절로, 구약에서 거룩한 일을 하기 전에 몸을 씻던 '정결례'와도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일종의 침례(온몸을 물속에 전부 담갔다가 나오는 예절)로서 단순히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주님을 모시기 위해 준비하는 성격을 띠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세례성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써 구원받아 새로이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예절입니다. 곧 자신의 죄로부터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성사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자기가 최우선으로 삼고 있던 모든 가치관과 사고 체계 및 행동 양식에서 벗어나,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새로운 삶, 인격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12¹“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²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로마 12,1-2)

15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여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느님의 세상 경영 방식과 인간의 사회 경영 방식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신 예수(마태 4,1-11)

4¹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나가시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²그분께서는 사십 일을 밤낮으로 단식하신 뒤라 시장하셨다. ³그런데 유혹자가 그분께 다가와,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⁴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⁵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데리고 거룩한 도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⁶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밑으로 몸을 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리라.’

‘행여 네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⁷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⁸악마는 다시 그분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며, ⁹“당신이 땅에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저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¹⁰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¹¹그러자 악마는 그분을 떠나가고, 천사들이 다가와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나는 어떤 유혹에 자주 빠집니까? 주님께서는 그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실천약속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실천해 봅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유혹 기사는 구원의 방법론 논쟁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첫째, 빵과 말씀의 유혹기사는 먹는 것 말고도 인간의 길이 따로 또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고, 먹고, 채우고, 갖추는 것 너머에 우애라든지 사랑, 믿음, 양보, 용서 등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자가 되어야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올바르게 사는 방법과 사람들과 함께 사는 방법도 배워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당연히 육체가 파열되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악마의 말대로 한다면, 그렇게 하는 이는 자기 인간 조건을, 즉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을

거부하는 것이요, 자기가 처해진 조건에 넘치는 허황된 것을 누리려 하는 것이요,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 됩니다. 사랑은 깜짝쇼로도 얻을 수 없고, 의심한다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나에게 절하면...”이란 유혹은 인간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 존엄성과 진실의 가치를 저버리고 악에게 굴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의와의 타협이나 뇌물, 부정 등을 선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행위)을 최고의 가치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넷째, 악마는 계속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하며 유혹합니다. 그래서 악마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조건을 다 채우시면서 사랑의 사명을 완수하려는 예수님을 막으려 합니다. 악마는 손쉬운, 그러나 옳지 않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악마(유혹하는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앞에 선 의로운 사람’을 강조하시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원죄와 본죄 때문에 파괴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죄는 자기가 지은 죄를 말하고, 원죄는 첫 인류의 범죄로 인해 유전되어 인간의 심성 속에서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죄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게 인간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의 구조[사회악, 필요악마저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언제나 성령의 인도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노력하면 우리에게 떠오른 생각이 유혹인지 아닌지, 또 유혹의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유혹에 걸려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청하십시오. 그러면 유혹을 바라볼 수 있으며 유혹을 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6 ⁴“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⁵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신명 6,4-5)

16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여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열등하게 여긴 적이 있습니까?

땀 흘려 일하는 것이 하느님의 벌이고 창피한 것인가요?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하시면서 자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러 나서시기 전에 가지셨던 직업은 무엇입니까?

말씀 목공 일을 하신 예수(마태 13,54-57.)

13 ⁵⁴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⁵⁵**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⁵⁶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⁵⁷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만일 사람들이 ‘노동은 천하고 힘들어서’ 안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아울러 매일 밥하고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는 가사 일을 하느님 창조 사업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실천약속

노동하는 사람이 존경받고 기쁘게 일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께서서는 ‘한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한 인간으로서 채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라면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30세까지 가정에서 양아버지 요셉을 따라 친히 목공 일을 하시면서 성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노공하심으로써 노동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첫째,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은 신성하고 존엄합니다. 노동은 천하거나 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수인 요셉을 따라 새로운 것을 만드셔서, 하느님의 창조 사업을 계속하고 발전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일하심으로써 노동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노동을 하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을 가져서 존엄하기 때문에, 노동은 존엄합니다. 나무나 물고기는 일할 수 없습니다.

둘째, 노동으로 하느님과 함께 창조 사업을 계속하는 협조자가 됩니다.

셋째, 노동으로 한 가족이 됩니다. 땀을 흘리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한 가족이 되고 사회를 이룹니다.

넷째, 노동으로 생계를 마련합니다(일해서 번 돈으로 먹고산다. 먹고살기 위해 일합니다).

다섯째, 노동으로 사회에 봉사합니다(좋은 것을 만들어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도록 합니다).

여섯째, 노동으로 자신을 기쁨과 보람으로 성취합니다. 자기를 투여하고 자기를 완성해 나갑니다.

일곱째, 땀 흘리는 노동으로 ‘새 하늘 새 땅’(하느님 나라)을 창조해 갑니다. 하느님 구원 사업의 협조자가 됩니다.

기도

우리가 오늘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요한 5,17)



17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여기

지루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합니까? 더 나아가 그 일이 내 삶을 투신할 만큼 가치 있고 나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었습니까?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인간의 길’은 어떻게 사는 모습이겠습니까?

말씀 주님의 사명(루카 4,16.18-19,21,)

4 ¹⁶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¹⁸“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¹⁹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²¹“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나자렛 회당에 들어가 일어서서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신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너희가 들은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오늘 우리 생활과 우리 주위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첫째,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을 가난한 이들에게로 인도하셨던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까?

둘째,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 1) 바로 내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낍니까?
- 2) 꼭 필요한 것인데도 가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동료나 친구가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 3)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셋째,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

- 1) 내 주위에 혹시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가지나 앓을까, 손을 대지는 앓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나, 체제와 제도, 스케줄에 묶여 있는 동료나 이웃이 있습니까?
- 2)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넷째,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

- 1) 자기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이나 이웃을 보지 못하는 동료나 이웃이 있습니까?
- 2)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섯째,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 1) 우리 주위에 눌러 지내는 동료나 이웃이 있습니까?
- 2)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섯째,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1)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실천약속

예수님께서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위의 여섯 가지 말씀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께서서는 구세주의 사명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 유혹을 이기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몸소 사심으로 써 우리에게 인간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킴으로써, 자신의 죄와 사회의 굴레(원죄-사회악, 구조악, 필요악)로부터 해방되어 하느님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구원된다”는 기쁜 소식(복음)입니다.

첫째, 하느님의 아들로 성령을 받으신 분, 바로 예수님께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오시면, 아니 우리가 주님의 영에 눈뜨고 주님을 갈망하게 되면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는 우리 죄에서부터 회개하여 주님을 뵈게 되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는 이웃을 해방시키러 가게 됩니다.

둘째,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꼭 같은 인간이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약한 이들과 외로운 이들과 우는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십니다(제20과 마태 5장 ‘참행복’ 참조).

셋째,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 - 탐욕과 스스로의 죄악 그리고 사회의 굴레 안에 갇혀 버린 사람들에게, 창조 때에 하느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모상(모습, 영)과 자유와 행복

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넷째,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사물뿐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느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다섯째,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 - 외적인 제도와 환경의 제약으로 인해 위축되고 손상된 인간성을 회복시켜 그를 억누르고 있던 억압에서 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여섯째, 주님의 은혜로운 해 - 하느님께서 바로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이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요한 5,19)



18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여기

세상 마지막 날이 오면 죄인들과 부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까?

내가 알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편 이 사회에서 알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들)는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합니까? 왜 무시당합니까?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캐오(루카 19,1-10)

19 ¹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²마침 거기에 자캐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³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⁴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⁵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캐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⁶자캐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⁷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이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⁸그러나 자캐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⁹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¹⁰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예수님께서서는 자캐오의 집이 구원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캐오가 무엇을 하겠다는 마음과 결심을 함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리고 자캐오는 어떻게 그런 마음과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실천약속

자캐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만일 못 뵈고 있다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회개는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첫째, 하느님께서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한 인간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가’(율법주의 구원관)가 아니라,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의한 것(예수님의 방문으로 새로 나는 자캐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다교의 ‘율법주의 구원관’에 의하면 사람이 구원되려면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정확히 지키기 위해 세부 규정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한편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사람들은 율법에 담겨진 하느님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정들의 조문 그대로만을 충실히 따르려는 경향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경우에 따라서는 율법의 근본 바탕이 되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신을 오히려 가로막는 구조적인 악의 요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정작 율법을 잘 모르고, 수월히 지킬 수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율법의 시행 규칙에 따르면 가난한 이들이나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며, 또 죄인과 어울리는 사람 역시 같이 죄인이 되므로 결국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버림받으며 소외되

니다. 이 율법주의 구원관 대로라면 죄인으로 취급된 이들이 구원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둘째, 인간은(자캐오) 하느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게 되면 변화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려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은 이러한 사랑을 받아 지금까지의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다시 살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흔히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돌보지 않아 하느님만을 기다려야 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기도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루카 19,8)



19 소녀야, 일어나라

여기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또는 하느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 나라는 언제 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루카 18,15-17)

18¹⁵사람들이 아이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하였다.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을 꾸짖었다. ¹⁶예수님께서서는 그 아이들을 가까이 불러 놓고 이르셨다.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사실 하느님의 나라는 이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¹⁷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린이와 같이 하느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탈리타 쿼’(마르 5,38-43)

5³⁸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³⁹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⁴⁰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⁴¹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는 뜻이다. ⁴²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열두 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⁴³예수님께서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벧자타 못 가의 병자(요한 5,1-10)

5 '그 뒤에 유대인들의 축제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²예루살렘의 ‘양 문’ 곁에는 히브리 말로 벧자타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다. 그 못에는 주랑이 다섯 채 딸렸는데,³그 안에는 눈먼 이, 다리저는 이, 팔다리가 말라 비틀어진 이 같은 병자들이 많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⁴이따금 주님의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출렁거리게 하였는데, 물이 출렁거린 다음 맨 먼저 못에 내려가는 이는 무슨 질병에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⁵거기에는 서른여덟 해나 앓는 사람도 있었다. ⁶예수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래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는,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고 그에게 물으셨다. ⁷그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 물이 출렁거릴 때에 저를 못 속에 넣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저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⁸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들것을 들고 걸어가거라.” ⁹그러자 그 사람은 곧 건강하게 되어 자기 들것을 들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¹⁰그래서 유대인들이 병이 나은 그 사람에게, “오늘은 안식일이오. 들것을 들고 다니는 것은 합당하지 않소.” 하고 말하였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라는 안식일 법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이지 않았습시다. 여러분이 하느님과 하느님의 나라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데 방해가 되는 의식이나 선입관이 있습니까?

(유다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하느님에 대해 생각했고, 그 생각의 틀에 맞지 않으면 하느님과 멀다고 간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기들 마음에 드는 하느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가 된 것입니다.)

실천약속

하느님을 믿기 위하여, 또 내 안에 하느님께서 생생이 살아 숨 쉬시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시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을 통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그 하느님께서 사람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게 해주십니다. 또한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오늘 기적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참조: 예수님의 말씀-제17과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루카 4,16-21)

첫째,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 - 하느님 나라는 어린이와 같이 순진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주님을 뵈기를 갈망하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어 실천하는 것이 그 나라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죽었는데도, 다시 살려 주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딸을 다시 살려 주셔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기적을 보고 미신적으로나 충동적으로 믿지 못하게 하십니다 (함구령).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신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마르 5,43.).

넷째,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 사람들의 미신적인 풍습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병이 나면 병원에 가야 하지만, 병을 고치는 것은 의사가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의사는 단지 병이 낫도록 협조하는 것이고, 실제로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제3과 ‘십계명’ 참조).

다섯째, 이러한 기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엄연히 현실에 존재하는 하느님 나라!

기도

“건강해지고 싶으냐?”



20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여기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 참행복(마태 5,3-12)

5 ³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⁴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⁵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⁶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⁷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⁸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⁹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¹⁰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¹¹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¹²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이상의 여덟 가지 행복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어떤 행복입니까? 왜 그 행복이 마음에 듭니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 - 부자는 왜 불행한가? 친구가 없다. 집이나 차 속에 갇혀 지낸다 등.)

실천약속

이상의 여덟 가지 행복 중에서 내가 지니고 싶은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그 행복을 얻기 위하여 내가 취할 방법은 어느 것입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참행복(산상 수훈, 진복 팔단)

주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경제적, 사회적인 성공보다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보다 이웃의 아픈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의 행복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보십니다.

첫째,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 당하는 가난 안에서 - 가난한 사람들, 괴로워하는 사람들, 하느님만이 도울 수

있는 가련한 처지에 놓인 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난을 싫어하고, 가난한 처지를 불행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가난은 하느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여, 모두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는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닥친 가난한 상황 안에서, 서로의 인격과 인정을 나누며 하느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1테살 5,16-18)

- 2) 자발적으로 선택한 가난 안에서 - 자신의 시간과 능력과 가진 것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위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이들은 주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다 줌으로써 가난해진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하느님의 뜻만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이미 하느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둘째,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 남에게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대신 당하거나, 이웃이 나쁜 일이 생겨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함께 슬퍼하는 이들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모여와’ 이웃을 도와 주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세상의 행복과 구원을 막고 지연시키는 불의와 사리사욕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슬퍼하는 이들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신의 사리사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만족하고 불안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 언제나 동료들을 따뜻하게 맞아 주고, 친절하고 자상하여 편하게 해주는 사람, 기다려 주고 용서해 주며, 기꺼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세상의 주인이며 주관자이신 하느님의 힘을 믿어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성령의 열매 - 갈라 5,22-23)를 간직한 채, 겸손한 종이신 그리스도, 주님 곁에 모인 그 사람들은 하느

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넷째,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흠족해질 것이다.” - 거짓을 싫어하고, 미움을 받더라도 나쁜 일에 함께하지 않으며, 죄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사랑으로 떠맡는 사람들(*예 - 낙태라는 죄를 조장하기보다 미혼모 보호와 입양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성실하게 공정을 펴며,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는”(이사 42,3-4) 사랑의 투사들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며, 하느님을 ‘목말라’(요한 19,28)하기에, 하느님께서 그들의 갈증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다섯째,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 죄인을 용서하고 죄인의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자비로운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루카 23,34) 하고 하느님 아버지께 대신 용서를 청하시며, 십자가상에서 죄를 뉘우치는 다른 죄수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자비를 입어,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마태 6,14)라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섯째,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 불안해하고 떳떳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거나 다른 생각(공공이 셈)을 하여 믿을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방이요, 인간이 저 혼자서 하느님과 같이 있는 지성소이며,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양심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완성되는 그 법을 놀라운 방법으로 밝혀 준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사목 헌장 16항)

일곱째,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 화해를 시키고 일치를 이루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원수는 하느님이 갚아 주실 것(로마 12,19 참조)이므로 보복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정의에 투신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평화는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신하

여, “주님, 저를 주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14)

여덟째,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외톨이 친구를 도와주다 같이 따돌림당하는 사람, 질서를 세우고 회복하기 위해 일하다 누명을 쓰고, 심지어는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들은 ‘익명(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 나라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느님의 예언자요, 의인으로서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주님의 후예들은 주님께서 받으신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버나드 헤링 저, 성찬성 역, ‘참된 행복’, 성바오로 출판사, 1981, 참조).

*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다가 오해를 받는 경우나, 위의 여덟 가지 행복을 찾다가 미움을 사고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의 여덟 가지 행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이며,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곧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예수님의 행복이며,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러한 행복을 갈구하는 마음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바치신 주님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며, 유혹과 악에서 헤어나, 주님께로 가서 주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입니다(마태 6,7-15).

기도

5¹¹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12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너희에 앞서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마태 5,11-12)

21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여기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최고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인데도,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하느님 나라의 최우선권(마태 6,25-34)

6²⁵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²⁶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여 주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²⁷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²⁸그리고 너희는 왜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핀 나리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아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²⁹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³⁰오늘 서 있다가도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느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³¹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³²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³³너희

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³⁴ 그러므로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겨자씨의 비유(마르 4,30-32)

4 ³⁰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³¹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³²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호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내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며 나누어 봅시다.

실천약속

겨자씨같이 잘 기억나지 않는 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위 ‘나눔’에서 다룬 실례와 연결시켜 이야기해 봅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우리가 살면서 선택해야 할 제일 첫 자리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또는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는 연습을 합시다. 여기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기업가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자는 기업가에게 노동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습니다. 이때 “자본(돈)이 제일 중요하다.” 즉, 자본이 노동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경제 제일주의의 자본주의자)은 임금을 ‘상품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능하면 (비용으로 취급되는) 임금을 줄이려고 합니다. 또한 기업의 주인은 기업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노동이 자본보다 우선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노동주의자)은 임금을 ‘노동자가 기업가에게 제공한 노동의 가격’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노동이라는 상품을 가능한 한 비싼 가격에 팔고자 합니다. 또한 자기가 일해서 기업이 돈도 벌고 커졌으니까 기업의 주인은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달리 사는 사람들 속에서 과연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신앙인은 임금을 비용으로도 또 가격으로도 보는 동시에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창세 3,19-)는 성경의 말씀에 따라 임금을 생계비라고 봅니다. 즉, 임금은 노동을 하는 기업가와 노동자 모두가 ‘인간답게 사는 데 필요한 만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노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한 수고료’요, ‘그 노동한 사람의 미래를 보장하는 몫’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임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람의 가족이 몇이고, 그 집안에 환자가 몇이며, 교육을 받아야 하거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몇인가”, 또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사는 데 얼마나 필요한가”를 직업의 종류와 직책보다 우선 생각한 후, 그 기업의 이익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한 기업의 주인은 하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 모두에게, 좀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어느 누구 하나에게가 아니라 인류

공동체에 자연을 양식으로 주셨고, 다스리도록 맡기셨으며, 그렇게 하신 분은 주인이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창세 1,26-30 참조). 오늘날 이러한 가톨릭 정신이 각종 수당이나 임금 체계 안에 그리고 사회 보장 제도로 스며들어 있습니다.

둘째, 그러므로 ‘하느님 나라’, 즉 “하느님께서 주인이신 나라”, “하느님께서 만들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맡겨 주신 그 하느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가슴 깊이 새기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합시다. 그래서 이웃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 하느님 사랑의 인류 공동체를 형성합시다.

셋째, 이렇게 하느님 나라는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기쁜 소식(복음)으로 받아들이며, 박해가 있거나 환난이 있어도, 꾸준히 그리고 성심껏 실천해 나가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하나 변한다고 세상이 변합니까? 구조가 변해야지!”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좋은 줄은 알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는데 나만 혼자 실천하다 보면 나만 뒤떨어지고, 나만 밀지고, 살기조차 어려워진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주님의 방법 외에 없다는 것을 인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마치 모래알만한 크기의 겨자씨가 큰 나무를 이루듯이,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작고 쉬운 말씀부터 하나씩 하나씩 자기의 것으로 삼고 행해 나갈 때, 우리는 인간 모두가 다 함께 기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하느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 6,33)

22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여기

집을 떠나서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기분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었습니까?

내 것을 찾음으로써 생기는 기쁨이, 결과적으로 소외감과 불안감을 가져다준 적이 있습니까?

*참고 : 아래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집나간 작은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하느님 아버지가 큰 아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작은아들을 편애하신다는 입장보다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관점에서 보십시오.

말씀 다시 살게 된 아들-하느님의 사랑(루카 15,1-3,11_L-32)

15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11“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12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13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14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15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¹⁶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고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¹⁷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¹⁸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¹⁹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²⁰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²¹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²²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²³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²⁴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²⁵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²⁶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²⁷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²⁸**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²⁹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³⁰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³¹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³²**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집 나간 작은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작은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모습’ 또는 ‘큰아들을 타이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리며 그 사랑 안에 잠시 머물러 봅시다)

나눔

1. 작은아들은 자기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기를 원했지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의 가족은 어떠했습니까? 내 삶의 경험과 연결시켜 판단해 봅시다.
2. 이 복음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됩니까?
3.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비롯하여 기쁨, 사랑, 평화, 온유, 화해, 용서 등을 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삶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좋은 것 외에 아픔, 슬픔, 괴로움조차도 선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실천약속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우리 행복의 근거는 무한히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를 왜 간섭하시는가?”하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근거는 인간 자신에게서 옵니다. 자기가 하

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빨리 하나님의 간섭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기 아기를 남자나 여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낳고 나서 보니 남자아이요, 여자아이더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간이 인간의 존재 근거라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때리든, 돈을 벌어 오도록 강요하든, 굶기든, 죽이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한편 오늘 내가 찾아 얻은 행복이, 나와 함께 동시대를 사는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일 수 있습니까? 나의 행복이 남의 불행을 전제로, 또는 남의 불행을 밟고 일어서는 것이라면 정말 행복할 수 있습니까? 또 오늘의 행복이, 나에게 내일은 불행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이기주의” 또는 “비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셋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만 온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을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원하는 바(하나님과 같아짐)를 이루려고 했지만(선과 악의 나무 열매를 따먹음),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수치를 느꼈고, 지금까지 누리던 행복마저 잃어버렸습니다(낙원에서 추방됨).

넷째,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돌아가고자만 한다면 언제든지 받아 주시고, 또 그렇게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기억합시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수치로 좌절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과 확신을 갖고 꼭 되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 안에서 다시 삽시다.

기도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루카 15,24)

참터

사람은 선물입니다.

사랑이 자기를 향할 때 미움이요, 죽음입니다.

사랑이 남을 향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며 생명입니다.



23 나를 따라오너라

여기

나를 주님께로 인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교리를 받으면서, 고민하고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열두 사도(마르 1,16-18; 3,13-19)

1 ¹⁶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¹⁷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¹⁸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3 ¹³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다음, 당신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가까이 부르시니 그들이 그분께 나아왔다.¹⁴그분께서는 열둘을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이름하셨다. 그들을 당신과 함께 지내게 하시고, 그들을 파견하시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며, ¹⁵마귀들을 쫓아내는 권한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¹⁶이렇게 예수님께서 열둘을 세우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시몬,¹⁷‘천둥의 아들들’이라는 뜻으로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¹⁸그리고 안드레아,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태오, 토마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타대오, 열혈당원 시몬,¹⁹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를 따르려면(루카 9,23-25)

9 ²³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²⁴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²⁵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마태 20,26-28)

20 ²⁶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²⁷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²⁸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오늘 내 생활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약속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며, 짊어지고 걸어가야 할 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또는 누구를 섬겨야 하고, 어떻게 섬길 것인지 약속합니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소명과 응답 - 평신도 사도직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를 의지할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 1) 당신 곁에 있게 하려고,
- 2) 그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어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 3)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려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생생이 살게 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셋째, 주님을 따르려면,

- 1) 자기를 버리고,
- 2)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 3)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고 시키시기보다 사랑해 주시고 대신 죽으면서까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삽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사랑(1코린 13,1-13)

13 ¹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뿔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²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깨닫고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이 있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³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주고

내 몸까지 자랑스레 넘겨준다 하여도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⁴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뽄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⁵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고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⁶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⁷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⁸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예언도 없어지고

신령한 언어도 그치고

지식도 없어집니다.

⁹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¹⁰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없어집니다.

¹¹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생각하고
아이처럼 헤아렸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적의 것들을 그만두었습니다.

¹²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¹³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24 나는 생명의 빵이다

여기

우리가 사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주님께 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뿐이라면, 무엇을 청하시겠습니까?

또는 정반대로 오늘 나와 내가 사는 사회 안에서, 주님께 아뢰고 나의 작은 정성이 라도 봉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소 먹이시는 하느님(탈출 16,4.31.35)

16⁴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³¹이스라엘 집안은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하였다. 그것은 고수풀 씨앗처럼 하얗고, 그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 ³⁵이스라엘 자손들은 정착지에 다다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 나를 먹었다. 가나안 땅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던 것이다.

오천 명을 먹이신 기적(요한 6,5-15)

6 ⁵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⁶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⁷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이백 데나리온어 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⁸그때에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⁹“**여기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진 아**

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¹⁰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오천 명쯤 되었다.¹¹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¹²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¹³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열두 광주리가 가득 찼다. ¹⁴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¹⁵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생명의 빵(요한 6,54-58,66)

6⁵⁴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⁵⁵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⁵⁶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⁵⁷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⁵⁸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⁶⁶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까? 최근 내 삶에 힘을 더해 준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실천약속

세상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먹을 것까지 마련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보답하는 의미로 나는 무엇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누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첫째, 주 하느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섬기러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탈출한 유다 민족을, 광야에서 먹여살리셨습니다. 유다 민족은 이 ‘만나’라는 양식을 먹으면서, 하느님을 보다 더 깊이 알게 되었고, 하느님을 온전한 주님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에게 물려오는 큰 군중을 보시고, “양식을 먹여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느님의 자비를 지니신 주님이십니다.

셋째, 한 아이가 가진 보리 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시고도 오천 명을 먹이시는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정성과 노력을 기꺼이 받아 주시고, 이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립보처럼 부끄러워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알려 드리고 미소한 노력이라도 봉헌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도록 합시다.

넷째, 또한 예수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고,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가난한 이들을 맡기셔서, 우리가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나누기 위해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청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주님께서서는 또 주님께 오지 않은 이들의 양식마저도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더욱더 이웃과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둬 채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 자신’(생명 - 말씀, 몸)을 우리 죄를 씻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시고,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삶의 양식으로 내주고 계십니다.

일곱째,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양식(‘주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 : 성체)을 우리 삶의 참 양식으로 받아먹음으로써, 주님의 사람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6⁵⁴“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⁵⁵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요한 6,54-55)

25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아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함께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혹시 내게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써 풀리기를 바라는 문제가 있습니까?

말씀 물위를 걸으시다(마태 14,22-33)

14²²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 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²³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²⁴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²⁵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²⁶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²⁷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²⁸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²⁹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³⁰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³¹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³²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³³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까?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까?

실천약속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의 일 속에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모십시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주님은 자연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구하십니다.

첫째, 제자들이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위험해졌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저런 방법으로 손을 다 써 보았지만, 그 혼란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써 비로소 그 혼란에서 헤어날 수 있었습니다.

- 1) 혼란은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생깁니다.
- 2)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혼란 중에 있음을 다 아십니다.
- 3) 제자들은 주님을 찾지 않고 자신들끼리 해결하려 하였고, 주님께서 오셨지만 주님을 ‘유령’으로 판단하고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4)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아들일 때 다시 살게 됩니다.
- 5)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혼란은 없어집니다.

둘째, “나다(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이 표현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 오실 때, 백성들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표현입니다. “나다(*EΓΩ ΕΙΜΙ*)”라는 이 표현을,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사용하셨습니다.(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는 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탈출 3,14.)

셋째, 성경에서 배는 ‘주님을 믿는 이들의 모임’ 곧 ‘교회’를 상징합니다. 주님을 믿

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나 개인 생활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올바르게 모시지 못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혼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때 눈곱만한 크기라도,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주님께 매달립시다. 그리고 따릅시다.

설사 베드로처럼 물에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주님을 찾으십시오. 실망하거나 좌절하여,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구하러 오고 계십니다. 주님을 뵈옵고 주님을 모십시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나를 주님께 허락하십시오.

기도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6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기

주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까?

어떤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일을 없던 것으로 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무엇을 얼마만큼 손해봅니까? 그것이 내가 마음 편히 사는 것보다 큰가요?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또 마음속에 간직한 채 마음 아파하는 것과 잊어버리고 속 편히 사는 것과 어느 쪽이 행복합니까?

말씀 주님의 기도(마태 6,7-15)

6 ⁷너희는 기도할 때에 다른 민족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⁸그러니 그들을 닮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청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신다.

⁹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¹⁰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¹¹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¹²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¹³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¹⁴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¹⁵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오늘 내가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며 내가 주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바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나눕시다.

실천약속

주님의 기도를 자주 바칩시다. 어려운 그 상황에서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지 약속합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우리는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이웃’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느님께 원하는 것’과 동시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빌고 또 우리가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빌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던 세상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제28과 ‘예수님 수난의 배경’ 참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무리 참된 인간의 길과 가치를 이야기하고 기적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심지어 죽이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 참담한 세상에서, 주님께서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자신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도 해설

(레오나르도 보프 저, 이정희 역, ‘주의 기도’, 한국신학연구소, 1986 참조)

첫째,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 하느님께서 땅에 계시다면 사람들은 하느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하늘에 계신다”라고 썼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최고의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 그 하느님을 체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임마누엘),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이용합니다. 그런 세상이 변하려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늘 무서운 줄 알고, 하느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며, 우리가 자기를 버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 하느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곧 하느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을 뜻합니다(탈출 3장 참조).

그러므로 인간 사회 안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들 모두에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심어지기를 기대하는 희망이며 요청입니다.

셋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나라는 장소나 영역이 아닌, 하느님께서 함께하심과 드러나심 그리고 지배하심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하느님께서 지배하시옵소서! 이 세상에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소서!”하는 기도이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라는 요청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종말의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나라는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 미움과 복수 그리고 절망의 유혹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자신을 바치겠다는 다짐이며, 더 나아가 사람은 자신의 악한 뜻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사랑의 힘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자비가 인간의 악의를 극복(변화)시켜 준다는 확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다섯째,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 오늘도 세상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몰라서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물적, 영적 양식을 주시고, 그 양식을 받아먹음으로써 저희가 하느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저희에게 주어진 양식을 이웃과 나누게 해주십시오.

여섯째,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 나를 괴롭히는 사람의 악을 용서하시고, 저는 절대로 남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상대의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도록 하는 마음을 불어넣고 또 내 마음속에 나를 괴롭히는 상대를 미워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어넣는, 우리 마음속에 숨어 있는 공통의 악으로부터 헤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용서의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의 잘못과 가끔 저희에게 위로를 청하는 이들이나, 도움을 청하는 이들을 못 본 체하고 지나친 저희들의 빚을 용서해 주시고 청산해 주십시오.

일곱째,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다는 자신의 한계를 거부하며, 욕을 따라 살지(갈라 5,19-21)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살기

(갈라 5,22-23)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에 “나는 하느님께 유혹을 받고 있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악의 유혹을 받으실 분도 아니시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야고 1,13-14)

여덟째,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 ‘세상의 죄’(구조악, 필요악)라는 ‘죄의 상황’ 속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악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아홉째, “아멘” - 저희에게 오시어 저희가 “아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 참으로 옳으십니다.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쉼터

“이제 저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할 바를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아니다! 네가 할 것이 하나 더 남았다. 주님께 아뢰라! 그분이 너와 함께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27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예수님께서서는 아래 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게 된 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살게 되었습니까? 또는 주위에 신앙을 가짐으로써 새로워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서 나온 라자로를 보시고 “그를 풀어 주어 가게 하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나나 어떤 친구에게서 풀어야 할 만한 것을 발견합니까?

말씀 다시 살아난 라자로(요한 11,3-4.17.21-27.34-44)

11³ 그리하여 그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⁴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⁷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²¹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²²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²³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²⁴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²⁵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²⁶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²⁷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³⁴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³⁵예수님께서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³⁶그러자 유대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³⁷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 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³⁸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³⁹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⁴⁰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⁴¹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 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⁴²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 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⁴³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⁴⁴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마르타는 27절에서 예수님께 “예, 주님, 주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3. 마르타는 39절에서 예수님께 “주님, 그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생활 중에 이미 굳을 대로 굳어 고치기 힘든

성격이나 버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모시면 그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실천약속

주님의 빛이 내 안에 스며들어와, 주님께서 보여 주시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첫째, 고통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고통은 죄의 결과나 벌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마련된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요한 복음 9장 2-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가 죄를 지었기에 저이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저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느님의 일이 저 사람에게서 드러나려고 그리된 것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느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은총의 순간이요, 세상을 구하시는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부활을 예비하는 의미로 라자로의 부활을 보여 주십니다. ‘라자로의 부활’에 나오는 부활을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육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는,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은 한 사람을 그릇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하느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도록 변화시키며, 이때부터 부활의 새 생명을 살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죽은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부활), 생명을 불어넣어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하시면서 죽은 라자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을 막고 있는 모든 억압과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다. “그를 풀어 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넷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이 죽은 라자로를 묻었던 무덤의 돌을 치우자 예수님께서서는 무덤에서 라자로를 건져 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게 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약속된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28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나는 언제 기도합니까?

또 나는 주님을 누구로 알고, 주님께 무엇을 바랍니까? 아래 보기를 보고 내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보기 : 좋은 선물을 주시겠지! - 예수님께서서는 산타 클로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겠지! - 예수님께서서는 은행장
한편,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이시며 왜 돌아가셔야만 했습니까?

말씀 베드로의 고백과 수난에 대한 첫번째 예고(마태 16,13-23)

16 ¹³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¹⁴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¹⁵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¹⁶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¹⁷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¹⁸**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¹⁹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²⁰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²¹그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²²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²³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내 바람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게서 나온 것입니까?

실천약속

주님께서 나에게 기꺼이 당신의 교회를 맡기실 정도의 믿음을 간직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의 수난 배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원을 알게되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첫째, 세례자 요한은 당시 백성들의 부패를(대표적인 예 : ‘헤로데의 부정한 결혼’) 힘 있게 비판하고,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라는 회개의 설교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소리를 전한 예언자입니다.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현실에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제시한, 하느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마태 14,2-12; 마르 6,17-19;

루카 3,10-14 참조).

엘리아는 왕비 이사벨을 따라 다른 나라 신과 다른 종교의 문화를 섬기던 아합 왕과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절대적인 우위권을 증명해 보인 예언자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농사의 풍요를 주는 바알신과 유일하시고 주인이신 하느님 중 어느 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증명하고, 참 신앙의 길을 걷도록 요청한 예언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므로, 다시 내려와 백성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리라는 기대를 받던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아는 현실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길과 신앙이 가리키는 갈림길 사이에서, 참 신앙의 길을 걷도록 한 예언자입니다(1열왕 18,20-40 참조).

“옛 예언자 중의 하나”는 ‘모세’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켜 준 예언자로서, 하느님과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 가까웠던, 그래서 그의 죽음도 확실히 알 수 없는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날 하느님의 이름과 권능으로 구원하러 오리라고 기대되던 성조입니다. 예수님을 이 예언자에 비유한 것은 마치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고, 모세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리라는 정치적이고도 현실적인 메시아(구세주)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탈출기 참조).

둘째,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과 고민을 다 아십니다. 그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와 생생이 살아 숨쉬는 ‘살아계신 하느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는 천상에서 지복 직관(스스로 행복함)을 누리실 뿐, 인간의 고통 따위는 관계하지 않으신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어 인간에게 맡기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아서 해야 한다.”, “신은 죽었다.’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잇속만 차리기 때문에 신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진정 살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기름 부어 축성하여 세운 왕’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메시아’(주님의 기름을 바른 자)를 번역한 것입니다. 단어가 가리키는 내용과 의미를 따라 우리말로 하자면 ‘구세주’(세상을 구원하실 주님)입니다. 고대부

터 왕이나 사제 또는 예언자들에게 하느님의 힘과 능력을 주어, 백성을 다스리고 인도하도록 기름을 부어 축성하는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름부음받은자’ 또는 ‘기름바른자’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통해 당신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백성들이 히브리어로 ‘메시아’ 또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또 기대하는 바는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자’이며, 그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입니다.

셋째,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믿도록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십니다(마태 16,17 참조).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만드시고, 그 대표인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깁니다(마태 16,18 참조). 또한 첫 교황인 베드로로 대표되고 사도들로 이어지는 교회의 사제들에게 우리들의 죄를 풀어 줄 권한(고해성사의 사죄권)을 주셨습니다(마태 16,19).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앞에 데려와 주님을 믿도록 하셨듯이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웃에게도 믿음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넷째, 구세주는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 사람들의 미움과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그 값을 치르기 위해 고통당해야만 합니다. 구세주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이라는 육적인 한계를 넘어 영이신 당신 자신이 되시리라는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서는 백성들의 바람, 즉 로마 식민지로부터의 해방과 물질적인 풍요와, 축복의 세상으로 데려다 줄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채워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대 종교와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과 죄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당시 사회와 종교의 가치관과 질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유대인 지배자들은, 예수님께서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그들의 부정수입을 방해했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요한 10,30; 14,6)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서 현실의 정치적인 왕이 되었을 때를 기다렸으나, 박해의 표적이 되자 배신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교인 지식인과 점령군 지도자들도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 앞에서 진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기도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마태 16,16)



29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여기

인생의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나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무력감과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었습니까?

평생해도 다 갚을 수 없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내 정성을 다 바쳐 누구를 도와 준 적이 있습니까?

말씀 과월절(파스카) - ‘넘어서 지나가다’(탈출 12,21-27 참조)

너희는 가서 저마다 제 집안을 위하여 작은 짐승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면, 이집트인들을 죽이는 파괴자는 그냥 지나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첫아들과 짐승들의 만배(첫 새끼)는 살 것이다.

최후의 만찬 - 성체성사의 제정(마태 26,20-28)

26²⁰저녁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²¹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²²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²³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²⁴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²⁵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²⁶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²⁷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²⁸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님께서 미사와 성체성사를 통해 내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미사에 참례하여 영성체를 하면서 주님을 느끼십니까?

실천약속

예수님께서서는 “내 몸과 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 뵈고 성체를 모신 후, 여러분은 무엇을 행할 것입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상에서 스스로 죽음의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 제사를 드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상 제사의 의미를 최후의 만찬을 통해 알려주시며, 주님을 기억하여 성체성사를 봉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미사를 봉헌하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현실에서 다시 이룩(재현)합니다.

첫째, 하느님께서서는 ‘어린양’을 제물로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인들의 만아들과 만배(첫 새끼)들을 죽음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해방절(과월절) 제사입니다.

둘째, 우리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써, 하느님(주님)의 자녀

로 살아갈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성체로 세상에 파견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밀씨가 됩니다.

셋째,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는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는 인간의 모습이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희생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 용서를 청하시는 사랑 가득한 분이십니다.

넷째, 미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상 제사를, 최후의 만찬의 형식인 빵과 포도주의 축성을 통해 재현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미사를 통해 인류 구원의 제사가 매번 다시 거행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서 바라는 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삽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삽니다. 사제는 제대에서 빵과 포도주를 봉헌하며 성체성사(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책상을 제대로, 또 우리의 땀과 노력을 책과 함께 제물로 봉헌하며, 성체성사의 삶을 삽니다(예 : 설거지대를 제대로, 물과 손과 내 노력을 제물로 : 책상과 작업대를 제대로, 서류와 재료를 제물로). 이는 바로 예수님의 수난을 통한 인류 구원의 성사이며, 또 하나의 성체성사인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최후의 만찬과 십자가상의 제사와 미사〉

	최후의 만찬	십자가상 제사	미 사
제사를 받으시는 분 (지향자)	성부 하느님	성부 하느님	성부 하느님
제사 드리기 위해 바치는 물건(제물)	빵과 포도주로 표시된 예수님의 생명(몸)	예수님의 생명(몸)	빵과 포도주로 표시된 예수님의 생명(몸)
제사드리는 이 (봉헌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제(예수님의 대리자)

기도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30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주님을 원망하거나 거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었습니까?

배반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떠했습니까? 그 후로 그 사람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억울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습니까?

왜 죄없는 사람이 죄지은 사람들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 받으십니까?

말씀 유다의 배반과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루카 22,39,42,45-48,54,59-71; 23,1-2,22-23,32-56)

22 ³⁹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⁴²“아버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⁴⁵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⁴⁶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자고 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⁴⁷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열두 제자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다가오자,⁴⁸예수님께서 그에게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느냐?” 하고 말 씀하셨다.

⁵⁴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대사제의 집으로 데려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뒤따라갔다.

⁵⁹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이이도 갈릴래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소.” 하고 주장하였다. ⁶⁰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자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 하고 말하였다. 그가 이 말을 하는 순간에 닭이 울었다.⁶¹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⁶²밖으로 나가 슬 피 울었다.

⁶³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⁶⁴또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물었다. ⁶⁵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⁶⁶날이 밝자 백성의 원로단, 곧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여 예수님을 최고 의회로 끌고 가서, ⁶⁷“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⁶⁸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⁶⁹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⁷⁰그러자 모두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하시자,⁷¹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23¹그리하여 온 무리가 일어나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다. ²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이자가 우리 민족을 선동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못하게 막고 자신을 메시아 곧 임금이라고 말합니다.”

²²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하자, ²³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³²그들은 다른 두 죄수도 처형하려고 예수님과 함께 끌고 갔다. ³³‘해골’이라 하는 곳

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 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³⁴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겹옷을 나누어 가졌다.³⁵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³⁶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³⁷말하였다. “네가 유대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³⁸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INRI)라는 죄 명 패가 붙어 있었다.

³⁹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⁴⁰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⁴¹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⁴²그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⁴³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⁴⁴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⁴⁵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⁴⁶**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읽는 것을 멈추고 잠시 침묵 중에 우리 구원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십시오.)

⁴⁷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 셧다.”** 하고 말하였다.⁴⁸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⁴⁹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⁵⁰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의회 의원이며 착하고 의로운 이였다. ⁵¹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인들의 고을 아리마태아 출신으로

서 하느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 ⁵²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 달라고 청하였다. ⁵³그리고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감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것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⁵⁴그날은 준비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⁵⁵갈릴래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도 뒤따라가 무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모시는지 지켜보고 나서, ⁵⁶돌아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었다.

(*잠시 침묵 중에 우리 구원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십시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예수님께서 진정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느껴집니까? 언제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되었는지 나누어봅시다.

실천약속

우리는 미사 때마다 거양 성체 후 사제가 “신앙의 신비여”라고 외칠 때,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라고 응답합니다. 오늘 이 성경 기사를 읽고,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삶 속에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세상 죄악의 굴레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 제사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구하러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

했고 오히려 배반과 미움으로 주님을 버렸습니다. ‘유다’는 물론이고 제자들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며 도망쳐 버렸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느님만이 유다인의 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절하거나 굴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왕은 카이사르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반역자입니다”하면서 점령군 지배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겨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왕,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기에는, 메시아에게 거는 기대가 너무나 이기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빌라도와 같은 이국인 지도자나 지식인들도 이 억울한 죽음 앞에 침묵하고 함구하였습니다.

둘째, 하느님의 아들이셨지만, 가난한 집안의 아기로, 겸손하고 보잘것없이 태어나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마태 5,11)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서 걸어가셔야 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아울러 모욕과 수치는 참으로 하느님께서서는 살아 계시고, 굽어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들만이 걸을 수 있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상에서 인간으로서 하느님께 자비를 구하셨고, 구세주로서 당신의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해주셨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루카 23,22)라고 했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47절). 이렇듯 예수님께서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인간으로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34절) 라고 인간을 대표하여 아버지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며 의인의 희생 제사를 바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모두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27-28)라고 하시며, 십자가상의 제사가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니에서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

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마르 14,35-36)라고 기도하시면서, 참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수난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아버지의 뜻을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다 이루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

기도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이사 52,13-53,12)

52 ¹³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승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¹⁴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질겁하였다.

¹⁵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물리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53 ¹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드러났던가?

²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돌아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리러볼 만한 풍채도 위엄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³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병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 ⁴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 ⁵그러나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 ⁶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 ⁷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 ⁸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 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 ⁹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히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묻혔다.

- ¹⁰그러나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 ¹¹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 ¹²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빌었기 때문이다.

쉽터 ‘위령 미사 감사송1’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된 부활의 희망을 주셨으니, 죽음의 운명이 분명히 다가올 것을 슬퍼하면서도, 장차 불멸의 생명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에 위로를 받나이다. 과연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아가는 것이오니, 세상에서 갇히던 이 집을 떠난 다음에는 천국에서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리이다.”

31 평안하나

여기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죽는다면, 죽기 전에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죽을 때 어떤 처지와 형편에 놓여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예수님의 부활(마태 28,1-10)

28¹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²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³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⁴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⁵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⁶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⁷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⁸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⁹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나?**”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¹⁰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내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실천약속

내 삶 깊숙한 곳에서부터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사랑을 심어, 주님의 부활을 증언합시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선포합시다. 주님의 부활을 맞아서 어떻게 새로 나시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죽음을 쳐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생명이라는 빛입니다. 어둔 방구석을 아침 햇살이 구석구석 비춰 보이게 하고 새 날을 만들어 주듯이, 부활은 인간의 죽음이라는 어둠에 생명의 빛을 던져 준 사건입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흔적 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지울 수 없듯이, 사랑은 밀치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죽지 않으며 끝내 엄연히 살아 있습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인간이 죽었고, 또 주님께서는 인간들의 원의를 통해 드리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인간을 사랑하여 인간의 증오마저도 수용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죽음의 세력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악을 품은 사람들은 주님을 죽여 없애 버리면 될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쳐부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셋째, 부활의 첫인사는 “평안하나?”였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을 받아들이면 참으로 편안합니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무를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9-12)

넷째, 우리는 한편 주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라고 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요한 15,15)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가 될 수 없는 불충한 우리를 친구로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시고, 그렇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당신 부활로 확실히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6)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여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당대 여자들은 법적으로 ‘증인’이 될 수 없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당신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들에게 파견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라

고 하셨습니다. 갈릴래아는 구원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소외 받고 가난한 이들이 사는 이방인의 도시인데 주님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가서 사랑으로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기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기도로 써 봅시다.

그리고 다 같이 큰소리로 ‘사도 신경’을 바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머리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쉼터

스승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새 날이 언제 오겠느냐?”

제자들이,

“아침에 해가 뜨면...”, “지구가 한 바퀴 돌면...”, “시간이 지나면...”

이에 스승이,

“새 날은 창 밖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다 형제 자매로 보일 때이다!”

32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여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집으로 초대할 적이 있습니까?

살면서 문득 주님을 느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망이나 충격으로 인해 집을 나서거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여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루카 24,13-35)

24 ¹³바로 그날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¹⁴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¹⁵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¹⁶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¹⁷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¹⁸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¹⁹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²⁰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²¹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²²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²³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²⁴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²⁵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느냐? ²⁶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²⁷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²⁸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²⁹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그 집 에 들어가셨다. ³⁰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³¹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³²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³³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³⁴“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³⁵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알리기 위하여 이른 아침 동트기 전에 여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날이 저물어 묵어가야 할 때까지 하루 종일 애써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느끼십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천약속

미사에 참례하여 성체성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 봅시다. (아직 예비 신자이기 때문에, 또는 죄 중에 있어서) 영성체를 할 수 없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모시고 (신영성체)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에 푹 젖어 봅시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주님을 만나 봅시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의 두 눈을 열어 사람들 사이에서 찾아 만나 봅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듭 나타나심(발현)으로써, 당신이 부활하시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사랑의 증거 삼아 보여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썩어 없어지는 육의 살이 아니라, 영과 육이 온전히 결합되어 영원히 살아 있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시어 당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변화된 새로운 몸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면서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빵을 나누는 모습에서, 주님 사랑의 징표를 발견하고,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둘째, 주님께서는 생전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심으로써, 주님 자신이 바로 ‘기쁜 소식’(복음)이 되셨습니다. 기쁜 소식이 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의 새 희망을 증언 보증하십니다.

셋째,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우리는 요사이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재해석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깨닫게 될 때 참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과 깊은 연관을 맺게 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아울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넷째,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대면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풀고, 주님의 힘을 받아 주님의 말씀을 실현해 나가면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성체성사에서 오는 힘으로 그 말씀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기도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33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서 있느냐

여기

“그(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잘 되기만을 바란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어떠리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제자들의 사명과 주님의 승천(마태 28,18-20; 사도 1,8-11)

28 ¹⁸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1 ⁸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⁹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 ¹⁰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구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또 나의 부족함과 아쉬움을 온전히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실천약속

주님께서서는 갈릴래아 산에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주님께서서는 우리 구원을 위한 수난과 희생의 제사로써,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아 우리의 참 주님이 되셨습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십니다.

첫째,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참으로 우리의 구세주, 주인이 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참 권능을 아버지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천상 천하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둘째, 주님께서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은 부활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육신은 벽에 막혀 문이 잠기면 열쇠 없이는 들어갈 수 없지만, 영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영의 새로운 몸으로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믿고 찾는 이들에게 함께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 세상 끝까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넷째, 주님께서신 신앙의 모범이신 마리아를 하늘로 불러 가셨습니다. 마리아의 뒤를 따라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승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며, 생의 또다른 시작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하였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상의 일례를 보면, 주님을 뵈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만 순간적입니다. 또한 기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곧 슬퍼지기도 하고 의심까지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느님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듯 나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1코린 13,12) 그러므로 내가 죽어 주는 것이 주님을 기억하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일 경우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 가실 그때 우리는 구원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마지막 날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영, 곧 성령을 받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갑시다.

기도

28¹⁸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20)

쉼터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신앙은
희망이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희망은 만사를 함께 이끌어들이는 미소한 것
신앙은 존재하는 것만을 보고 있으나
희망은 존재할 것을 보고 있네,
사랑은 존재하는 것만을 사랑하지만
희망은 존재할 것을 사랑하네.
신앙은 영원과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을 사랑하지만
희망은 시간 속에서 영원을 위해 존재할 것을 보고 있네.
이를테면 영원의 미래를 위해...

희망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것을 보고 있네.
희망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나 존재할 것을 사랑하네.
시간과 영원의 미래 속에서. (Ch. 폐기)

- G. 그레사케 저, 심상태 역, '종말신앙 - 죽음보다 강한 희망', 135쪽, 성바오로 출판사, 1980



구세사 3

교회와 성령



34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여기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줍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성령께서는 주님을 느끼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말씀 ‘성령 강림’과 초대 교회(사도 2,1-4.36.41-47)

2¹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²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³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³⁶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⁴¹ 그리하여 그날에 신자가 삼천 명가량 늘었다.

⁴²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⁴³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⁴⁴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⁴⁵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⁴⁶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⁴⁷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 안에서 성령의 움직이심을 느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우리 안에 주님께 대한 마음이 솟구쳐 오른 적이 있습니까?

실천약속

나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과 원의를 주님께 말씀드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청합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우리에게 주님과 주님의 아버지를 알도록 해 주시는 분은,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뵈옵고,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셔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첫째,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유다인들에게 잡혀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쳐도 누가 믿어 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런 제자들을 변화시켜 용감히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둘째,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은 (진정한) 사도들이 되었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은 후’, ‘함께 모여’, ‘빵을 나누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이웃과 함께 삶을 나누는’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의 ‘빵 나눔’은 미사를 의미합니다.

셋째, 성령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건설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아계시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끄십니다.

넷째, 성령께서 사람과 함께하시는 표징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갈라 5,22-23)입니다. 아울러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신 표징은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사도 2,43-47)에 나타납니다.

기도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내려오시어, 주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느끼고, 사랑하고, 또 이웃에게 전하며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문을 써서 한 명씩 읽으면서 기도합시다. 또는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의 기도문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다같이 아래의 ‘성령 송가’를 한 줄씩 좌우로 나누어 교송으로 바칩시다.

성령 송가

“오소서 성령이여 창조주시여 / 신자들 마음속을 찾아주시어
당신이 창조하신 우리가슴을 / 천상의 은총으로 채워주소서.
당신의 그이름은 위로자시니 / 높으신 하느님의 선물이시요
생명의 샘이시며 불이시옵고 / 사랑과 신령하신 기름이외다.
당신의 일곱은사 베푸시오니 / 하느님 아버지의 오른손가락
성부의 언약대로 내려오시어 / 우리입 말솜씨로 채워주시네.
빛으로 우리오관 비취주시고 / 그사랑 우리맘에 부어주시며
영원한 능력으로 도와주시어 / 언약한 우리육신 굳게하소서.

원수를 멀리멀리 쫓아주시고 / 언제나 당신평화 내려주소서
앞장서 이끄시는 당신손길에 / 해로운 모든것을 피하리이다.
성령의 힘을입어 성부를알고 / 성자도 그힘으로 알게하소서
성부와 성자께로 좇아나시는 / 성령을 우리항상 믿으오리다.
아멘.”

쉽터

두 친구가 조용히 거닐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말했다.

“세례를 받았으며, 축하한다!”

“응, 고마워!”

“참 너 주님의 기도 외울 줄 아니?”

“아니, 못해! 너무 길어서…”

“뭐? 그럼 성모송은?”

“그것도 혼자서는 못해…”

“영광송은?”

“…….”

“그럼, 너 어떻게 세례를 받았니?”

“음! 난 주님의 기도는 잘 못 외우지만 변한 게 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세례받기 전에는 학교 끝나면 PC방에서 해가 저야 돌아오고, 결코 모든 일에 지지 않으려고만 했는데, 이젠 양보도 하고… 이 정도면, 썩스럽지만 새사람 된 거 아니겠어!”

35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기쁨이 솟구칩니까?

그 사람(들)과의 사랑으로 일치를 이룹니까?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행복합니까?

말씀 사랑과 믿음(1요한 4,7-21).

47“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⁸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⁹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¹⁰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¹²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¹³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¹⁴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¹⁵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

르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머무릅니다.¹⁶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¹⁷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 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¹⁸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¹⁹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²⁰누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²¹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우리 부부나 가족, 모임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위에서는 우리 사랑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사랑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까?
예비 신자 권면? 환자 위로? 고아 입양? 노인 시중? 장애인 돌봄?

실천약속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그 사랑은 넘쳐서 마침내 우리를 구

원하시기 위해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보답할 수 있습니까? 또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흘러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이웃과 나누립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우리 신앙의 목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신비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 하나님(성부)께서는 아들 예수님(성자)을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의 사랑 속에서 성령께서 나십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서로 사랑으로 일치하는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을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퍼져 나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고, 아들은 그 모든 권한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행사하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영은 아버지와 아들을 연결시켜 주십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께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웃에게 갑니다.

둘째, 제1위이신 성부께서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세상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 예수님 덕분에 ‘아빠’, ‘아버지’ 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제2위이신 성자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상 제사의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 주신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넷째, 제3위이신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 일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여, 삼위일체의 신비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불의는 바로잡더라도, 인간은 미워하거나 단죄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 삼위일체의 신비는 말로 설명하고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신앙의 신비’입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신 사랑과 일치의 표징으로 다가오시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사랑의 신비를 바라보고 또 그 사랑 안에 참여합시다.

- 예 1 한 자루의 초
 - 불 - 성부 - 사랑 자체
 - 빛 - 성자 - 은총과 계시
 - 열 - 성령 - 친교와 일치

- 예 2 나의 ‘생각’과 ‘의지’와 ‘행위’의 일치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36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여기

성모님을 아십니까?

사람들은 마리아에 관해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은 성모님께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듭니까?

말씀 필립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요한 1,43-46)

1⁴³이튿날 예수님께서서는 갈릴래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에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4⁴⁴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5⁴⁵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6⁴⁶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카나의 혼인 잔치(요한 2,1-11)

2 '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2²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3³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4⁴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5⁵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6⁶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 세 동이들이었다. 7⁷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

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8⁸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9⁹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 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10¹⁰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11¹¹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마리아는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주님께 알리고, 하인들에게는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 어떤 상황을 알려 드리겠습니까?

실천약속

이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에 나타난 마리아의 모습 중에서, 내가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모습을 하나 골라 실천을 합시다.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우리는 성모님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하늘로 불러 올라가셔서 하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님을 뵈오며 우리 교회의 나아갈 길과 우리 구원의 희망을 간직합니다.

첫째, 현실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마리아(제7-1과 ‘구세주 탄생 예고’ 참조) – 아기를 가지리라는 천사의 예언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둘째, 우리의 현실을 주님께 알려 드리고, 주님께서 오시도록 청하는 마리아 –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요한 2,3).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요한 2,5)

셋째,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는 마리아 –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요한 19,25)

넷째, 주님께서서는 마리아를 우리 교회에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다섯째, 교회 공동체와 함께 성령을 청하는 마리아 –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13-14)

기도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37 그리스도인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

여기

우리 집안은 언제 누구부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말씀 깨어 있어라(루카 21,34-36)

21 ³⁴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뿔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³⁵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³⁶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지금 난 어떻습니까? 주님을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끄시기를 원하십니까?

실천약속

내가 어떻게 살면,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는 것이 될까요?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전체(세계) 교회사

첫째, 사도 시대의 교회 – 제21과 ‘성령 강림과 교회’ 참조, 사도행전 참조.

둘째, 사도 후 시대의 박해와 종교 자유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으로부터 직접 양성받은 사도들이 돌아가신 후, 교회 공동체는 신자들을 위해 ‘사도들의 증언’을 ‘신약 성경’으로 기록하고, 당시 유럽 지역의 종주국인 로마 제국에까지 전교,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건설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 ‘하느님만이 인간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왕을 신으로 섬기던 대부분의 나라에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회심으로 인한 ‘밀라노 관용령’으로 종교의 자유를 얻기까지,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천주교가 각 민족들의 점령자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으로써, 교회 선교 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정치 세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일치가 ‘박해에 의한 순교’라고 여겨왔지만, 박해가 끝나자 수도 생활로서 주님과의 일치를 도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는 박해가 끝나자마자, 교회 내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 삼위 일체 및 의화설(그리스도의 죽음으로써 죄를 지은 인간이 죄 없는 인간으로 판정받음)에 대한 의심과 이론으로 인한 이단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셋째, 중세 교회

중세 교회는 유럽의 거의 전체를 그리스도교화 시켰고, 동시에 교회의 영역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정치 세력과 연결되었습니다. 중세 시기는 ‘그리스도교 교리’라는 하나의 사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두를 지배하는 질서였습니다. 한편 이슬람 교도들의 예루살렘 성지 점령에 대해 유럽의 그리스도교 국가들이 ‘십자군’을 만들어 전쟁에 나섰으나, 실상 그 모습은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종교를 명목으로 한 인간적인 정치, 경제의 세계 질서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수도회’를 중심으로 한 은수자, 고행자, 순례자 등이 관상 기도를 통해 주님과 일치하려는 노력이 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고행자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주님의 고통만을 중시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기쁨에 대해 소홀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관상 기도와 고행을 주로 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의 정신과 삶에 쉽게 따라갈 수도, 성경을 자기 나라의 말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라틴어로 쓰여짐).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따르기보다는, 성인들의 삶을 더 친근하게 느껴 성인 공경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아쉬움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신학 및 철학 연구를 중심으로 한 대학 등의 전문 교육과 자선 의료, 성음악, 성미술, 성의복, 교회법의 제정 및 발전 등으로 근대 문화와 사상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넷째, 근세 교회

이처럼 교회가 현실적인 정치권력과 연결되자, 세상에 복음의 참 빛을 드러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휩쓸리게도 되고, 방대한 토지 등의 재산을 국가 또는 정부 권력으로부터 희사 받게 되자,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여 가난해지신 주님의 사랑’이 퇴색되어 갔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고착되고 현세적인 모습을 개혁하고자 했던 여러 노력들이 개혁자들과 주변의 이해관계로 인해 좌절, 변형되기도 하여 종교 분열을 가져왔습니다(영국 교회 : 성공회 – 영국 왕의 재혼이 교회 법적으로 금지되자, 재혼을 위해 영국 땅에 있는 교회의 책임자는 교황이 아니라 영국 왕임을 선언하며 갈라져 나감; 개신교 – 루터 신부는 종교의 개혁을 위해 힘썼으나 자신의 삶이 뒤따르지 못하여 힘이 없었고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독일 제후들의 후원에 자신을 맡김으로써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음). 이러한 분열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끝없이 용서해 주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사랑을 신뢰, 의지하고 거둬 태어나려고 하는 신앙이 현실적인 안정과 풍요 속에서 약해진 결과로 보입니다.

한편 이러한 자극과 아울러 교회는 한때 더 고착되기도 하였으나, 내적으로 쇄신과 선교 활동에 노력하여, 다시금 본 모습을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 십자

군 전쟁 이후 활발히 전개된 세계 무역을 위한 대단위 공장 설립 및 기계화에 따른 노동자들과 도시 빈민들의 비인간적인 처지나 호소에 대해 복음적으로 응답하지 못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교회 제도뿐 아니라 주님마저도 부인, 거부당하는 ‘무신론’과 ‘계몽주의’ 및 ‘공산주의’의 출현을 유발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이러한 혼란 시기에 ‘성모 발현’이라는 기적을 통해 다시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교회가 복음의 빛으로 다시 서도록 이끌어 주셨고, 선교사들의 순교와 1, 2차 세계 대전 중에 교회는 세상과 다시 연결될 수 있었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쳐 현대 세계에 주님을 증거 할 수 있는 바른 방법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근세에 있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일 만한 영신 활동을 꼽는다면 ‘빈첸시오 아 바울로회’(이하 ‘빈첸시오회’)와 ‘가톨릭 노동 청년회’(J.O.C./Y.C.W./이하 ‘가노청’)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대 세계에서 착취당하고 신음하는 노동 빈민 계층에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활동하였는데 ‘빈첸시오회’는 가난한 노동자들에게 단순히 말과 기도뿐만이 아닌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인 필요를 제공하고 있고, ‘가노청’은 가난한 노동자들 스스로 어떻게 현실을 복음화하며 자신들을 억압하는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정의’구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선’과 ‘정의’는 서로 반대되거나 우열이 아닌,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교회라는 마차의 두 바퀴입니다.

기도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5)



38 교우들은 보십시오

여기

나는 언제 어떤 기회에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 후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나 우리 주위에서 신앙을 삶으로 증거하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말씀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옥중 서간(현대문 번역본)

교우들은 보십시오. 우리 벗이여, 생각하고 생각해 봅시다.

하느님께서 아득한 태초로부터 천지 만물을 지어 제 자리에 놓으시고, 그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목적과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태어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태어난 보람이 없고, 살아 있더라도 쓸데 없습니다. 비록 주님 은총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영세 입교해 그분의 제자 되니,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도 또한 귀하지만은 실행이 없다면 그 이름을 무엇에 쓰겠습니까. 세상에 나서 입교한 효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고 그 은혜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만 입고 그분께 죄를 짓는다면 어찌 태어나지 않은 것만 같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를 보건대, 때를 맞춰 밭을 갈고 거름을 주며 더위에 그 큰 고생도 아랑곳 않고 아름다운 씨를 가꿉니다. 밭 거둘 때에 이르러서 곡식이 잘되고 영글면 땀 흘린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기뻐합니다. 곡식이 영글지 않고 밭 거둘 때 빈 대와 껍질만 있다면, 주인은 땀 흘린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노력을 생각하며 그 밭을 박대할 것입니다. 이같이 주님께서는 땅으로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을 벼로 삼으며,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하신 피로 우리를 물 주시어 자라고 영글

도록 하셨습니다. 마침내 심판 날 거두기에 이르러, 주님의 은혜를 받아 좋은 결실을 보았으면 주님의 의로운 자녀로써 천국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글지 못했으면 주님의 의로운 자녀라 하더라도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알아봅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 내려와 친히 무수한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데로부터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고 고난 중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풍속이 아무리 치받고 싸운다 한들 교회를 감히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승천 후 사도 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두루 무수한 박해와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 조선에 교회가 들어온 지 5, 60여 년 동안 여러 번 박해가 일어나 교우들이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오늘날 박해가 불길같이 일어나 여러 교우들과 나까지 잡히고 아울러 여러분까지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애통한 마음이 어찌 없겠으며, 사사로운 정 때문에 차마 이별하기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시되 작은 털끝이라도 주님께서 돌보신다 했고, 모르심이 없이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어찌 이렇듯한 박해가 주께서 하고자 하신 일 아니며, 주님의 상과 주님의 벌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온갖 마음으로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 대장의 편에 서서 이미 항복받은 세속의 마귀를 공격합시다.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모르는 이런 시절을 당해 마음을 늦추지 말고 도리어 힘을 다하고 역량을 더해서 마치 용맹한 군사가 무기를 갖추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이 우리도 싸워 이겨냅시다.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환난을 거두시기까지 기다립시다. 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부디 삼가고 극진히 조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조심을 배로 더하고 더해 갑시다. 여기 감옥에 있는 20인은 아직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내니 설혹 죽은 후라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의 가족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할 말이 무궁한들 어찌 편지로서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 그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전장에 나아갈 터이니 부디 공을 착실히 닦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마음으로 사랑해서 잊지 못할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만나 부디 마음을 헛되게 먹지 말고 밤낮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빌어, 마귀와 세속과 육신의 삼구에 맞서서 박해를 참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대들의 영혼을 위한 큰일을 경영하십시오. 이런 박해 때에는 주님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세속과 마귀를 물리쳐서 덕행과 공로를 크게 세울 때입니다. 부디 환난에 눌려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받들고 영혼을 구하는 일에서 뒷걸음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난 날 성인 성녀들의 자취를 살펴 이를 본받고 실행하여 우리 교회의 영광을 더하십시오. 하느님의 착실한 군사이며 의로운 아들임을 증거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비록 여럿이나, 마음으로는 한 사람이 되어, 사랑을 잊지 말고 서로 참아 나가며 돌보고 불쌍히 여기며, 주께서 가련히 여기실 때를 기다리십시오.

할 말은 끝없지만, 있는 곳이 타당치 못해 더 적지 못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한 삶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을 여러분의 입에 대어 사랑으로 입맞춥니다.

부감목 김 안드레아

세상 온갖 일은 주님의 뜻 아닌 것이 없고, 주님께서 내리신 상이나 벌 아닌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박해도 역시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바니 그대들도 이를 달게 받아 참으면서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께 슬퍼 빌어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여러분의 감정과 영혼 대사에 어찌 거리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오래 지 않아 나보다 더 착실한 목자를 상으로 보내시리니 부디 서러워 마십시오. 큰사랑을 이뤄 한 몸같이 주님을 섬기다가, 죽은 후에 한가지로 영원히 하느님 앞에서 만나, 길이 영복을 누리기를 천 번 만 번 바랍니다.

평안히 계십시오.

김 신부가 애뜻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행사위원회, '그분과 함께 거례와 함께'-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신앙 대회 유해 순회기도 자료집, 102쪽, 1996)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편지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순교자들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최고의 방법이 죽음으로써 증거하는 것이라고 믿었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않고, 오히려 주님을 만나 뵈을 기대감으로 기꺼이 순교하였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실천약속

‘나눔’에서 나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내가 해야겠다고 느낀 것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한국 천주 교회사

첫째,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

한국 천주교회는 조선 말기인 1777년 천진암과 주어사에서, 당대의 정치계에서 소외된 남인 학자들이 모여, 조선 시대의 통치원리인 성리학을 연구하던 중, ‘이벽’으로부터 서학이라고 하는 천주학을 전해 듣고는 이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함으로써 태동되었습니다. 당시 이들이 연구하던 책은 중국에 와서 선교하던 ‘마테오 리치’의 ‘천주실의’ 등으로서, 그 내용은 보유론(유교를 보완하는 천주학)이었습니다.

둘째, 첫 세례자와 신앙 공동체

이들 중 ‘이승훈’은 1784년 정부로부터 중국에 동지사로 파견된 부친을 따라 북경까지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옴으로써, 한국 최초의 세례자(세례명 -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선교사가 들어와 선교를 하기도 전에 이미 교회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모든 지역 교회는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 교리를 가르치고

신앙 공동체를 건설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한편 이 시대의 선교는 결과적으로 교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유럽 강국에서 파견된 선교사의 뒤를 따라 군대가 들어가 그 나라를 식민지로 만드는 서세동점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온 이승훈은, 자신이 보고 온 대로 권일신(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정약종(아우구스티노), 정약용(세례자 요한) 등에게 세례를 베풀고, 중인 계급인 김범우(토마)의 집(명례방 - 현 명동 성당)에서 모여 미사도 드리고 성사를 집전하는 가성직 제도의 교회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곧 그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는, 성사 집전을 중단하고 선교 사제를 모시는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고해성사의 보속을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 베풀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희생하기” 등으로 그리스도교 정신을 상당히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순교자들

1791(신해)년 전라도 진산군의 ‘윤지충’(바오로)이 모친 장례에 그의 외사촌 형 ‘권상연’(야고보)과 함께 가족들이 만든 신주를 불살라 버리고 천주교 식으로 장례를 치르려 하자, 가문과 정부에서 패륜아로 사형에 처했고 이로써 천주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인 선교 사제 ‘주문모’ 신부와 ‘이루갈다’ 동정 부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서양에 원조와 지원을 청하는 백서를 쓴 황사영을 비롯한 300여명의 교우가 순교한 신유박해(1801)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척사운음(천주교를 버릴 것)을 반대하여 상재 상서(재상에게 교리로서 반박하는 글)를 냈던 ‘정하상’(바오로) 과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 김대건(안드레아)의 부친 ‘김제준’(이냐시오), 13세의 최연소 순교자 ‘유대철’(베드로), 조선 교구 2대 교구장인 ‘앵베르 뱀’ 주교, ‘샤스탕 정’, ‘모방 라’ 신부 등 세 명의 프랑스 성직자를 비롯하여 약 150여 명의 교우가 기해박해(1841) 때 순교하셨습니다(이중 79분이 1984년 성인품을 받음).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안드레아)은 1845년 8월 17일 상해 근처 김가항에서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10월 12일 42일 간 파도와 싸우다 강경 황산포에 입국하여

홀로 선교 활동을 하시다가 3대 교구장 ‘페레올 고’ 주교를 모시러 백령도에 나갔다가 잡혀 병오박해(1846) 9월 16일 새남터에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후 함께 마카오로 신학 공부를 하러 갔던 ‘최양업’(토마) 신부가 1849년 4월 15일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귀국, 전국 팔도를 다니시다가 고 주교님의 뒤를 따라 병사하셨고, 우리나라 최초의 ‘성요셉’ 신학교(배론)를 세워 한국인 사제를 양성하고자 했던 4대 교구장 ‘베르뇌 장’ 주교님과 ‘브르트니에르 백’, ‘볼리외 서’, ‘도리 김’, ‘푸르티에 신’, ‘프리니콜라 박’ 신부님들은 새남터에서, ‘최형’과 ‘전장운’은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다블뤼’ 주교님과 ‘위앵 민’, ‘오메트르 오’ 신부, ‘장주기’(배론 신학당 집주인), ‘황석두’는 충남 보령의 갈매곶에서 대원군의 정권 기반을 다지기 위한 1866년부터 1873년까지의 병인박해 속에서 순교하셨습니다(이중 24분을 합쳐 모두 103분이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품에 오르셨습니다).

*천주교 교우들에 대한 당시 정부의 박해 원인을 아래와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1) 정치인들의 당쟁 속에서, 정권 탈취와 통치 기반 안정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 2) 남녀노소, 양반, 중인, 상놈의 구분이 명확한 신분 사회인 조선 사회(지배 계층)의 눈에는, 천주교인들이 ‘하느님만이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함께 어울림으로써, 왕권과 사회 통치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비쳤습니다.
- 3) 각 선교 단체들이 당시 동양의 전래 문화 풍습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조상 제례’인 제사를 금지함으로써 무리한 박해를 초래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존중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1만여 명에 이르는 순교자(martyr)들은 기꺼이 죽음으로써 하느님을 증거(martyr)하였고, 박해 속에서도 신자들은 교우촌을 형성하여 선교를 계속했습니다.

한편 달레 신부의 ‘한국 천주 교회사’는 순교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재산과 권리를 몰수당하고 쫓겨 다니면서도 서로 먹을 것을 나누었기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순교자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 믿고 섬

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자랑으로 삼습니다.

넷째, 신앙의 자유

이러한 박해 속에서도 교우들은 신앙을 굳건히 증거하였고, 1886년 한불조약(한국과 프랑스)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개화기엔 문화(출판, 문맹 퇴치), 교육(초·중·고·대학교 및 기술 훈련소), 의료(병원, 조산소, 무료 병원, 산재 병원), 자선(고아원, 양로원, 무료 급식소, 장애인 공동체), 사회사업(노동 상담소, 근로자 기숙사, 노동자 사목 센터, 정의 평화 위원회) 등으로, 70년대엔 인권과 민주 사회 건설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 사회 안에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은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우리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빛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12²⁴“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²⁵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²⁶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요한 12,24-26)



39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고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만의 체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느낀 적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말씀 새 계명(요한 13,34-35)

13 ³⁴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³⁵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성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란 단순히 성당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과 특성은 무엇입니까?

실천약속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이 모임이 바로 교회입

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성사 일반

“성사는 인간의 성화와 그리스도 몸의 건설, 그리고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향하며, 표징들로서 교육에도 기여한다. 성사는 신앙을 전제할 뿐 아니라 말씀과 사물로 신앙을 기르고 굳건하게 하고 드러낸다. 그래서 신앙의 성사들이라고 한다. 성사는 참으로 은총을 가져다주며, 그 집전은 신자들이 그 은총을 알차게 받고 하느님을 바로 예배하며 사랑을 실천하도록 매우 잘 준비시켜 준다.”(전례 헌장 59)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입니다.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표지, 표징, 사인-sign)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사를 통해 하느님을 만납니다.

첫째, 성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사랑의 표지입니다.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보이도록 해주는 표시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서는 말씀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도록 보여 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사랑, 슬픔, 배고픔 등 온갖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표징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성사의 원천이시기에, 예수님을 ‘원성사’라고 합니다.

셋째, 교회는 성사를 통해 신자들에게 주님을 알리고, 신자들은 성사 생활로 주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계속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 보여 주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성사입니다.

넷째, 그러면 “누구를 위한” 성사인가?(케난 오스본 저, 김광식 역, 성사 신학, 제3장 그리스도교의 성사들과 방법론, 56쪽, 분도출판사, 1993. 참조)

예수님께서서는 보고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느님의 성사입니다. 교회 역시 그리스도교 신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성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생명으로 드러나신 하느님의 성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산다면, 그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빛을 반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교회의 칠성사와 준성사들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믿는 이들을 위한 성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은 칠성사의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칠성사와 준성사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칠성사를 받은 신자들의 삶(성사 생활)을 통해, 사람들은 성사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신자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사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님의 성전’이며 주님의 사도요, 선교사들입니다.

기도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요한 3,3)



40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제 버릇 개 못 주는데...”

“세례만 받으면 천국에 가는 것 아닌가요? 다들 그러잖아요?”

“어떨 땐 세례 받은 신자가 더 하던데요? 고해성사만 보면 되는데요!”

나는 왜 세례를 받았습니까?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까?

세례성사와 관련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니코데모와 이야기하시다(요한 3,1-6,15-17)

3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²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³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⁴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배 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⁵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⁶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⁶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¹⁷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죽이고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주님께 가지 못하도록 꼭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십니까?

실천약속

주님께만 전적으로 희망을 두고 살 결심이 섰습니까?

지금 내 이웃 중에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세례성사(성세, 영세 - 세례성사를 받음)

“사제 공동체의 거룩한 특성과 유기적 구조는 성사와 덕행을 통하여 현실화된다. 신자들은 세례를 통하여 교회에 합체되어 그리스도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호를 받고, 또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려고 힘쓴다.”(교회 헌장 11)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후 다시 부활하신 것

처럼, 우리도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죄에서 죽고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즉,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버리고, 몸과 마음이 변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세례 때 받은 지워지지 않는 세례의 ‘인호’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느님께 받은 신앙을 세상에서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세례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됩니다. 이 성사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 이웃, 자연 모두를 ‘선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는 은총을 받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례성사를 통해 주님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로마 6,8)



41 사도들이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땐, 기도하면 꺼진 전등불도 들어오곤 했어요……. 신앙은 어릴 때, 뭘 모를 때의 얘기 아닌가요?”

“신앙이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그저 위안이나 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우슈비츠에서, 총칼 앞에서 하느님이 계시던가요?”

“어떻게 그걸 뿌리칠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난 죽는데.”

“세상은 험한데 성당에만 가면 편안해요. 성당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견진성사와 관련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다(사도 8,14-17)

8 ¹⁴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¹⁵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¹⁶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¹⁷**그때에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성령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실천약속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청하며 지금 이 순간 이루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견진성사

“견진성사로 신자들은 더욱 완전히 교회에 결합되며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 말과 행동으로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여야 할 더 무거운 의무를 진다.”(교회 헌장 11)

순교자들이 용감하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기꺼이, 기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증거 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써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사도가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견진성사를 통해 주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

5 ⁵“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로워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¹⁶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갈라 5,5.16)

42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사는 신부님이 드리는 거잖아요.”

“앉았다, 섰다, 뭐가 뭔지 정신이 없었어요.”

“성체가 예수님의 몸이라는데 그걸 먹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배부른 것도 아니고…….”

“희생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닌가요? 나도 살기 힘든데 무엇 때문에…….”

나는 성체성사와 관련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생명의 빵(요한 6,47-58)

6⁴⁷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48나는 생명의 빵이다.** ⁴⁹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⁵⁰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⁵¹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⁵²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대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⁵³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⁵⁴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⁵⁵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⁵⁶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⁵⁷**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⁵⁸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나는 지금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3. 주님께서 만드시는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는 데 참여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실천약속

생명의 빵이신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심으로써 내가 얻은 영원한 생명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시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성체성사

“그리스도교 생활 전체의 원천이며 정점인 성찬의 희생 제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신적 희생제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자기 자신을 그 제물과 함께 봉헌한다. 이렇게 봉헌에서나 영성체에서나, 똑같지 않고 저마다 다르게, 모든 신자는 전례 행위 안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거룩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신 신자들은 이 지존한 성사로 적절히 드러나고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느님 백성의 일치를 구체적

인 방법으로 보여 준다.”(교회 헌장 11)

영성체(성체를 모심)로써 주님과 온전히 결합되어 하나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양식을 얻습니다. 참으로 영성체는 주님과 그리고 신자들과 하나 되게 하며, 또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할 세상과 하나 됩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를 하느님 아버지께 그리고 세상을 위한 또 하나의 성체로 나를 봉헌합니다.

주님께서는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

11 ²⁴“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²⁵“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1코린 11,24,25)

43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할 수 있어요? 그저 적당히 믿으면서 살면 되지…….”

“누군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나요? 누가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 있어요?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상대는 잘못도 안 비는데 그냥 왜 용서해 줘요? 나만 우습고 만만한 사람 되는 거지…….”

“죄는 용서받았다고 해도 상처는 남지 않나요? 못을 빼도 못자국은 남잖아요.”

내가 자유롭고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고해성사와 관련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 받을 것이고(요한 20,19-23)

20¹⁹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²⁰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²¹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²²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²³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서 미움과 원망을 주님 사랑으로 씻어주십니까?
3. 나를 미움과 원망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천약속

내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형제들과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용기가 생겼습니까? 나를 용서해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누구를 용서함으로써 보답 하겠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고해성사 - 화해의 성사

“고해성사를 보는 신자들은 하느님께 끼친 모욕에 대하여 그분의 자비로 용서를 받으며, 또한 동시에 범죄로 상처를 입혔던 교회, 사랑과 모범과 기도로써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여 노력하는 교회와 화해를 한다.”(교회 헌장 11)

사랑을 거부하고 배신함으로써 주님과 이웃, 그리고 자신과 떨어진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이 성사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또한 이 성사 안에서, 힘을 회복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할 힘을 얻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고해성사를 통해 주님처럼 사랑을 완성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

13⁷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⁸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1코린 13,7-8)

섬터

나는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믿지 않는다.

- 마하트마 간디 -



44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사람요? 가난한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도 좋고 사랑도 좋지만, 적당히 쉬고 내 인생도 살아야죠. 그렇게 바쁘고 힘든 일을 누가 해요? 자기 시간, 자기 인생도 없이 그저 남의 일에만 쫓아다니고,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인생은 즐기라고 주신 것 아닌가요? 좋은 게 좋은 것 아닌가요? 하느님의 뜻은 뭐 다른가요…….”

나는 성품성사와 관련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요한 21,15-19)

21¹⁵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¹⁶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¹⁷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

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¹⁸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 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¹⁹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무엇을 얻으러 가고 있습니까?

실천약속

나는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는 아니지만, 세례성사를 통해 ‘평신도 사도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평신도 사도로서 어떻게 활동하 시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성품성사

“신자들 가운데에서 성품에 오르는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 하도록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다.”(교회 헌장 11)

주님만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봉헌하고, 주님의 대리자로서 사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규 신학 교육을 받게 한 후, 하느님 백성을 사랑

하고 주님께 이끄는 목자로 서품시키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하느님의 말씀과 은총으로 교회를 사목합니다.

주님께서는 성품성사를 통해 주님과 함께 가난한 이들에게 가자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 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마태 16,18)



45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안 맞으면 헤어져야지. 안 맞는 걸 맞춘답시고 고생만 하지, 새 사람 만나서 새롭게 살아야지요.”

“혼자 살면 정말 편하겠어요. 자식 없는 게 상팔자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서로 싫어하는 일만 조심하면서 맞추며 사는 거지.”

“저희도 처음엔 주는 대로 낳아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회가 이젠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었어요.”

나는 혼인성사와 관련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혼인과 이혼(마태 19,1-6)

19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들을 마치시고 갈릴래아를 떠나, 요르단 건너편 유다 지방으로 가셨다. 2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오자 그분께서는 그곳에서도 그들을 고쳐 주셨다. 3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4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 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5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6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가정을 어디로 이끌고 계십니까?

실천약속

우리 가정이 일치를 이루고 화목한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혼인성사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풍요로운 사랑과 일치的神비를 드러내고 그 신비에 참여하는 혼인성사의 힘으로(에페 5,32 참조), 그리스도인 부부는 부부 생활은 물론 자녀 출산과 교육을 통하여 성덕에 나아가도록 서로 도와 주며, 또한 하느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자기 생활 신분과 영역에 고유한 은총을 받는다. 실제로 이 혼인에서 가정이 생겨나고, 가정에서 인간 사회의 새로운 시민들이 태어나며, 성령의 은총을 통하여 그들은 하느님 백성을 역사의 흐름 속에 영속시키도록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바로 이 가정 교회에서 부모는 말과 모범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최초의 신앙 선포자가 되어야 하며, 각자의 고유한 소명을 특별한 배려로 육성하여야 한다.”(교회 헌장 11)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교회 법전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1055조 1항)

혼인성사를 통하여 예수, 마리아, 요셉의 나자렛 성가정을 이룸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혼인을 주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비유하십니다. 혼인을 통해 가정이 형성되고, 가정에서 인간 사회의 새 시민들이 탄생하며, 그들이 영원한 하느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혼인성사를 통해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무르익히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

5²⁴“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25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에페 5,24-25)



46 기름 부어 고쳐 주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늙으면 병들고 죽기 마련인데…….”

“또 살면 뭐해요? 여러 사람 고생만 시키는데…, 아무도 모르게 빨리 죽어서 추한 꼴 안보이고…….”

“난 죽을 수 없어요! 지금 죽으면 내 아내나 자식은 어떡하고,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저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가시다니? 하느님도 무심하시지…….”

나는 병자성사와 관련하여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열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마르 6,7-13)

6 ⁷그리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⁸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⁹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¹⁰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의 먼지를 털어 버려라.” ¹²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¹³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아플 때나 외로울 때 어떻게 회복합니까?

실천약속

내가 원치 않게 닥친 고통이라도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고 겪게 되면 주님 십자가의 고통에 합치되리라는 희망을 가집시다. 주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고자 겪으신 고통에 합치하기 위해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해 어떤 희생을 봉헌하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병자들의 거룩한 도유와 사제들의 기도로 온 교회는 병자들을 수난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 맡겨 드리며, 그들의 병고를 덜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도록 간청하는(야고 5,14-16 참조) 한편, 병자들도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자유로이 결합시켜(로마 8,17; 콜로 1,24; 2티모 2,11-12; 1베드 4,13 참조) 하느님 백성의 선익에 기여하도록 권고한다.”(교회 헌장 11)

병자성사는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당신의 깊은 사랑으로 다가와 위로와 용기를 북돋워 주는 성사입니다. 한편 이 성사는 병이 낫기 위해 받는다고보다는 병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이 주님께서 세상을 구하시기 위하여 겪으시는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한 성사이며, 그러한 이유로 더욱더 그리스도 주님과 결합, 일치되기 위한 성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병자성사를 통해 주님께 희망을 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기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25)

쉼터

한국이의 감자

“한국아, 너 예수님 봤니?”

“아뇨”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니?”

“참, 아저씨는 눈에 보여야만 믿나요?”

그 다음날 한국이는 싹이 튼 감자를 들고 가 아저씨에게 주면서 말했다.

“잘 보세요, 아저씨. 이 감자가 겨울에 싹이 나지 않았을 때에는 죽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파랗고 예쁜 새싹이 돋아난 것을 보면, 이 감자는 그동안 살아 있었고 또 지금 이렇게 생명이 돋아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저씨 눈에 예수님께서 안 보인다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이 아니고, 이 감자의 새싹처럼 아저씨의 마음에 봄이 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믿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47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여기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사람이 있었습니까? 언제 누구였습니까? 그때의 느낌을 나누시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루카 10,25-37)

10 ²⁵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²⁶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²⁷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²⁸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²⁹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³⁰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 버렸다.³¹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³²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³³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³⁴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³⁵이튿날 그는 두 데

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하고 말하였다.³⁶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³⁷율법 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요즈음 내 주위에 나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실천약속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성사 생활은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자신의 현실에서 실현하는 삶입니다.

첫째, 영원한 생명, 즉 구원 또는 영원히 사는 방법은,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 참조 :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20,31)

둘째, 우리는 내 명예와 단순한 동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활동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합니다.

셋째, 우리의 이웃은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나 상태에 처해, 내가 (또는 내 사랑의 나눔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요구와 호소에 응해 주님의 삶을 삽시다. 이 모습이 바로 성사적인 삶이며 성사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넷째, 주님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고 말씀 하십니다.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자기 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때 비로소 ‘믿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10,37)



48 날마다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여기

전례에 참례하면서 힘을 얻습니까?

지금까지 전례에 참례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말씀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사도 2,46-47)

2 ⁴⁶ 그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⁴⁷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묵상 주님의 평화와 위로를 느끼며 10-40여분

나눔

1. 위 성경 구절 중 내 마음을 끌어당기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주님께서 전례에 참석하는 우리를 굽어보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실천약속

전례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첫째, “전례, 특히 감사의 제사(미사성제)에서 우리 속죄의 구원 사업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전례는 신자들이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 교회의 본질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함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 … 전례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주 안에 성전으로, 성령 안에 하느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연세의 풍부한 분량에 이르도록 건설하며, 동시에 오묘하게 그들의 힘을 굳세게 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는 것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 2)

둘째, “그렇지만 역시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도적 활동의 목표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성세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한데 모이고, 교회 가운데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또 주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편 전례는 신자들로 하여금 ‘빠스카 신비에서 힘을 얻어 사랑 안에 한 마음이 되도록’ 격려하고, ‘신덕으로 받은 것을 생활로써 지키도록’ 기도한다. 그리고 하느님과 인간과의 계약이 미사성제 중에 갱신됨으로써,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충동적인 사랑으로 이끌고 불타오르게 한다. 이런 이유로 전례, 특히 미사성제에서 흡사 샘에서와 같이 우리에게 은총이 흐르고, 또한 여기서 성교회의 모든 활동의 목적인 성화와 하느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되는 것이다.”(전례 10)

셋째, “그러나 이같이 완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전례에 참여하고, 자기 소리에 마음을 합하고, 천상의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 은총과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전례 11)

넷째, “그렇다고 영적 생활이 오로지 전례에 참여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비록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더라도 방에 들어가 은밀한 곳에서 성부님께 기도할 것이고, 더구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간단없이 기도할 의무가 있다. 예수님 죽으심의 고난을 언제나 우리 몸에 지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도 또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사도에게서 배우고 있다. 우

리는 미사성제 중에 주님께 ‘성스러운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우리 자신도 주께 바쳐지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시도록 기도한다.”(전례 12)

다섯째, 전례주년

- 1) 주일 –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사도 시대 이후 여덟째 날마다 ‘주님의 날’을 지냅니다(전례 102, 106).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 신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며 얻은 날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일요일이라고도 합니다(3과 ‘십계명’ 참조).
- 2) 대림절 –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4주간, 교회력으로 새해입니다. 대략 11월 마지막 주간이나 12월 첫 주간부터 시작해 성탄 전까지입니다.
- 3) 성탄절(성탄 시기) –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시기.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탄생함을 받아들이는 때입니다.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부터 시작됩니다.
- 4) 주님 공현 대축일 – 주님께서 온 백성들에게 당신 모습을 드러내신 날을 기리는 날(우리나라에서는 1월 2일에서 8일 사이의 주일에 바친다)
- 5) 사순절 – 다시 태어나기 위한 세례의 준비와 회개의 보속을 바치는 시기(전례 109) 사순 시기의 보속은 단지 내적이고 개인적이어서는 안되며, 동시에 외적이요 사회적이어야 합니다(전례 110).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던 ‘40일 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대략 2월말이나 3월에 시작됩니다. 이마에 재를 바르고 회개와 봉사를 다짐하는 ‘재의 수요일’부터 5주간입니다.
- 6) 부활절 –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시기. 부활 대축일부터 7주간
- 7) 주님 승천 대축일 – 주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우리나라는 부활 제7주일).
- 8) 성령 강림 대축일 – 성령께서 오심을 경축하는 날(승천 다음 주일).
- 9) 삼위 일체 대축일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기리는 날(성령 강림 다음 주일).
- 10)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 인류 구원을 위해 내주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리는 날(삼위 일체 다음 주일).
- 11) 예수 성심 대축일 – 인류 구원을 위해 피흘리시며 자비 지극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굽어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리는 날(성령 강림 후 제2주일 다음 금요일).
- 12) 그리스도왕 대축일 – 왕이신 그리스도를 경축하는 날(연중 마지막 주일).

여섯째, “전통에 따라, 성교회는 성인들을 공경하고 그들의 확실한 유해와 성상도 존중한다. 왜냐하면 성인들의 축제는 그리스도께서 당신 종들 안에 행하신 놀라운 업적을 알리고, 신자들에게는 본받을 적절한 모범을 제시하기 때문이다”(전례 111).

- 1)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1일) – 주님의 어머니를 기리는 날.
- 2)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25) – 성모의 예수 아기 잉태일.
- 3) 한국 교회의 수호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12/8) – 성모의 원죄 없으신 탄생 기념일(한국 천주교회 주보성인).
- 4) 성모 승천 대축일(8/15) – 주님의 어머니께서 하늘로 부름을 받아 올라가신 날.
- 5)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3/19)
- 6)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6/24)
- 7)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6/29)
- 8)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7/5)
- 9)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9/20)
- 10) 포교 사업의 수호자 예수 아기의 성녀 데레사 동정 대축일(10/1)
- 11) 모든 성인의 대축일(11/1)
- 12) 포교 사업의 수호자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 대축일(12/3)

*한국 전통 민속 대축일

- 1) 설 대축일(음력 1/1)
- 2) 한가위 대축일(음력 8/15)

일곱째, “성음악과 성미술 및 전례 제구 및 제의는 전례의 성격과 품위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전례 112-130)

여덟째, 기도는 주님을 기억하고, 나를 주님께 봉헌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 묵상하는 순간이며, 방법입니다.

기도

2⁴⁶“신자들은 날마다 한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⁴⁷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사도 2,46-47)

부록



부록 1 •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피 정

피정 일정표1

첫 날 저녁(토)
17:00 출발 18:00 식사 20:00 피정 준비 – 자료 정리 22:00 정리 및 취침
이틀째(일)
07:00 기상 07:30 아침 기도 08:00 식사 09:30 묵상 안내 및 묵상 기도 12:30 식사 14:00 나눔 16:30 발표 17:30 파견 미사

피정 일정표2

오후 2:00 피정 준비 – 자료 정리 3:00 묵상 안내 및 묵상 기도 5:00 간식 5:30 나눔 7:00 파견 미사

피정 준비 자료

여기

1. 이 과정을 처음 시작할 때의 상황과 조건을 회상해 봅시다.
(이 과정을 시작해야겠다고 느꼈을 때는 언제 무슨 경우였습니까?)

2. 이 과정을 밟으면서 내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 1) 변화된 내 모습은?
- 2) 기뻐할 때는?
- 3) 힘겨웠을 때는?

나눔 1

1. 이 과정을 밟고 난 지금, 주님께서 내 삶에 영양가 있는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2. 이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과 호소를 느끼고 있습니까?
3. 이 과정을 통해 내가 꼭 해야겠다고 다짐할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묵상과 기도

이 글을 읽기 전에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이 글을 그냥 읽어 내려가지만 말고 각 구절마다 조금씩이라도 멈추어 머물러 계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도록!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 보면서……

그러나 죄책감 없이,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매 문단을 마칠 때마다 예수님께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이 글을 다 읽고 감상하지만 말고, 당신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고 대화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더 깊은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 주시도록!’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어머니께서도 당신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싶어요.”

피정은 휴식입니다. 일종의 휴식이죠. 피정은 영적인 휴가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고 예수님 안에서 정리하는 영적 휴가의 기간입니다. 피정은 새로운 세계,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느끼고 만나서 하느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영세다! 나눔이다! 다 잊고 폭 쉬기만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평화와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2,000년 전 존재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지금도,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분께 허락하는 정도만큼... 문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내가 안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2. 예수님과 협조 - 용서

우리는 가끔 걱정거리, 고민(돈, 성격 등등)때문에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기본적인 것은 바로 ‘양심 품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고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민이겠죠. 걱정을 낮추세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만든 고민거리겠죠.

사랑의 첫걸음은 ‘용서’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하면서 양심을 품고 있다면? 마음의 문을 닫고는 “여는 길을 닫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설사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용서하지 못해서 연기 하더라도 꼭 해야만 합니다. 또한 용서는 주고 받는 것입니다. 또 용서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전에 알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잊어버린 것뿐이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르는 사이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지낸 것도 있습니다.

75세 되신 어떤 영국 할머니가 “신부님, 저는 기도 못해요!” “기도하고 싶어요?” “해야죠!” “마음에 어떤 장애가 있어요?” “...” “혹시 누구에게 앙심 품고 있는 것 있어요?” 한참을 울다가 “어떻게 아세요? 그동안 내 어머니를 미워했어요!” “할머니, 어머니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 기도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할머니는 해방감을 느꼈고 기도할 수 있었답니다.

용서의 목적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가끔 용서할 때, “먼저 사과해야...,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야” 등의 조건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십니다.

내 원수!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형제 • 자매 앞에서 “∞형제 • ∞자매, 난 앞으로 당신이 어떤 일을 해도 용서하겠습니다!” 하는 용서의 기도를 바치세요. 용서의 기도를 바칩시다. 아버지의 얼굴을 상상하면서 “나는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빕니다”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식구..., 지금 내 곁에 없지만 한 명씩 한 명씩 용서해 나갑시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앞에 나아가 “내가 이외에도 모르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를 빕니다”하고 기도하십시오. 죄책감이나 실망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기도를 바칩시다.

3. 통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여는 좋은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그것은 ‘통회’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중에서 고백하기 어려운 죄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고. 머리로 기억하며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당황하고, 창피해 하고... 문제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열매 때문에 계속 느끼고 가져야 하는 좋지 않은 감정입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중독자들은 습관적인 죄인입니다. 알코올, 성, 도박, 가출... 가족 중에 이런 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은 ‘사랑’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자신을 자제하고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습관적인 죄를 다시 지으면 죄책감과 자기 미움이 짝트게 됩니다. 그러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인정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들에게 야단치면 죄책감과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단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뉘우치는 마음으로 갈 때만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진짜 통회하는 마음은 우리의 뜻대로도 아니요, 미안해서도 아니요, 답답해서도 아니요. 돌아온 탕자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야단을 맞는 것보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소원은 “그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 몰래 일 저질렀다가 나중에 사건을 아신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네가 그랬지?” 난 마음 속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딱 잡아 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옆에서 “개는 안 그랬어요. 개는 그럴 애가 아니예요. 개는 믿어요.” 그 순간 고백과 통회의 눈물이...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께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으면서도 어머니께는 왜 그럴 수 없었는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통회하기 위해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통회는 죄책감에서 나온 것이거나 엉터리 통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조절하고자, 통제하고자 합니다. 습관적인 죄는 일종의 무의식에서 범하게 되는데 범하자마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상기하여야 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너무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되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안 받겠다고 기피합니다.

4. 기도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알고, 그분과 비슷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바로 그분 자신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생활 안에서 예수님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서 기도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는 예수님과 연락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펴드는 것도 기도가 됩니다. 생활하면서 기도를 못하게 될 때 두 손을 펴드십시오. 그것이 봉헌이 될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자 청하는 것이 될지... ‘연락’이 되면 기도가 됩니다. 아무 방법 이든 연락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드리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도를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1) 앙심, 2) 습관적인 죄를 범하는 문제(성사 볼 때마다 매번 같은 이야기), 3) 무관심(“너무나 생소하다!”, “혼자서 가만히 앉아서 무엇하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입니다.

참고로 하느님과 만나게 될 때 생기는 여러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1) 기복적이고, 주술적으로 하느님을 생각하는 사람(“무엇, 무엇, 주세요!”), 2) 윤리의식과 당위의 하느님(“착하게 살아라!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3)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고민에 빠져서 하느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해 하느님과 대화 못하는 경우(이렇게 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지, 저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4) 하느님을 만나 하느님에게서 힘을 얻는 경우(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께서는 화를 내시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혼내시기보다는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며 힘을 주신다).

기도가 안 된다고, 쉽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고민하거나 쉽사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머물러 계십시오. 상본에서 본 예수님의 얼굴이나 자기 마음속의 상상과 추억 속에 남아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기도합니다. 다음의 글을 조용히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청원이 내 마음속 깊이 스며들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청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일하다 지쳤을 때,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화가 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원하거나 원망할 때,

가정이나 직장에서 나만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때,
 집안에서 외롭고 힘겨울 때
 직장에서 모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셨을 그때처럼 저희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집안에서 부모님과 마찰을 빚을 때,
 서로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의 표현이 서로 다른 것이리니 하고 여기게 해주소서.
 세대와 문화의 차이 뒤에 숨겨져 있는 사랑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선인들의 지혜를 깨우쳐 알게 해주시며,
 어른들을 존경하고, 스스로 존중받는 법을 익혀 알게 해주시고,
 부모님과 선인들의 손길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안배를 느끼게 해주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부부의 사랑을 축복해 주시고,
 나를 반대하고 내 뜻을 따라주지 않을 때 서운해 하기보다
 주님께서 내 좁은 마음을 채워주시려고 배우자를 선물로 보내주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고 섭섭하게 대할 때 겸손과 사랑의 희생으로 자존하게 해주시며,
 서로에게 기대하며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한다고 실망하고 원망하기보다
 배우자에게 나를 선물로 내주어 배우자의 삶에 충분히 기여하지 못해 송구스럽게 해주시고,
 제 욕심을 줄여 더 이상 스스로 실망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내 잣대로 지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변화되기를 요구하기보다
 배우자의 빈 곳을 하나라도 더 채워주려 노력하게 하시고,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 주님과 배우자에게 감사하며 살게 해주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자식들이 부모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하거나 분노하기보다
부모와는 또 다른, 자식들의 새 세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부모가 바라는 것과는 또 다른, 자식들의 바람도 존중하게 해주시며,
자식들이 실수하고 잘못하면서,
스스로 고쳐갈 수 있는 과정을 거치도록 배려하게 해주시고,
자식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용서하고, 지지하며, 기다리는 사랑을 갖도록 해주시며,
주님께서 자식들에게 심어준 사명이 무엇인지도 헤아리게 해 주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세상에서 생업에 종사할 때,
열심히 준비했어도 사람들의 호응이 적을 때,
저희가 틀리거나 나쁘지 않았어도, 사람들의 반응이 점점 줄어들고 약화될 때,
저희와 함께하셔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한 명의 새 사람도 벗도 얻을 수 없으며,
예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으면 저희의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없사오니,
주 친히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어 열매맺어 주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일터에서 외톨이가 되었을 때,

내 잘못이 아닌데도 책임을 져야 할 때,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그 일과 역할을 맡아야 할 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냈을 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오해받고 멸시받을 때,
동료들과 일터를 위해 희생해야 할 때,
진리와 정의와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가정과 일터에서 살면서 세상의 경쟁과 물질주의에 휩싸일 때,
재물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에 흔들릴 때,
탐욕과 시기와 질투의 허상으로 가려진 공허한 먹이사슬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모욕과 멸시와 소외에 맞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다가 손해를 입고 천대를 받을 때,
저희와 함께하셔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어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해 주세요.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게으르거나 악한 것도 아닌데 잘 풀리지 않을 때,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 우울해질 때,
스스로 부끄럽고 왜소하다고 느낄 때,
저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저희에게 힘과 희망을 안겨주시며,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

주님을 모시고 힘차게 하느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게 하소서.

성모님, 성모님도 사랑해요!

성모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알려 주세요.

성모님, 저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성모님, 성모님께서 하느님께 순명하여 아기 예수님을 가질 수 있었듯이,

주님과 사람들이 저를 요구할 때,

그 요구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여겨

순명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세요.

성녀 소화 데레사님, 성녀님도 사랑합니다.

저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던 성녀님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정열과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해주세요.

오로지 예수님만을 사랑하여 세상 선교사들의 주보성인이 되신 성녀님,

저희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저희 몸으로 살아나갈 때,

예수님에게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받게 전구해 주세요.

☞ 이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바치기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하시다가,

주님께 청하고 싶은 말을 다 드렸으면,

잠시 침묵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후,

다 마치셨으면,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면서, 기도를 마치십시오.

.....

5. 관상 기도

요한 복음 13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발씻김 예식’ 기사(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예수)를 관상해 보십시오(유다는 빼고).

13⁴(예수님께서)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겹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⁵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⁶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⁷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⁸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¹²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겹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¹⁵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요한 13,4-8,12,15).

관상 기도는 영화 구경처럼 바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거기에 넣고 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갑자기 일어나 대야에 물을 떠서 내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서 무슨 감정이 떠오르는지, 내가 무슨 말을 예수님께 하게 되는지, 또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말리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와 아무 상관없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셔서, 무릎을 꿇고, 내게 묻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도 되겠느냐?”

이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십시오. 어쩌면 제일 먼저 나의 죄가 생각나 예수님을
똑바로 뵈지도 못하고 부끄럽고 피하고만 싶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말씀하십시오.

“그때 제 죄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기록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 압니다.

“예수님, 그 때 제가 범한 죄를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지금 저를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하는 일 중의 아주 작은 부분이고 부정적인 면일
뿐이다. 나는 그럴 때는 안 본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도 난 너를 사랑한다.”

이 순간에 주님의 사랑에 깊이 깊이 폭 잡겨 머물러 계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대화가 다 끝났으면, 양말을 걷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 발을 씻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발치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발을 씻어 주십니다.

여기서 오래 머무르십시오.

6. 믿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는지요? 이런 물음에 우리는 쉽게 “예”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얼마 정도? 몇 %정도? 5-70%...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우리를 믿으시는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믿는지요?

“내가 너를 믿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옳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
는다” 라는 말이 옳은 말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등산을 갔습니다. 산을 오르다가 잘못해서 낭떠
러지 밑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떨어지다가 다행스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겨우
살았구나 하면서 이 궁리 저 궁리 해 보았지만 아무런 수가 없었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하느님을 생각하며 하늘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하느님 나 좀 살려주소!” “네가 나를 믿느냐?”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수 있
다는 것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네가 거기 걸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그 사람은 소리쳤을 것입니다. “아니! 이분 말고 다른
하느님 안 계시?”

나의 생명을 그분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 정도로 그분을 신뢰하고, 좋아하고, 믿고,
손에 맡겨드립니다. 어려울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요? “예수님! 너무하십니다. 힘든
계명을 주지 않는 다른 하느님, 다른 예수님은 안 계실까” 하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요? 코린토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몸에 가시로 찌르는 듯한 병’을 받았다고 합니다.

반모임에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야 할 때, 자기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삶이나 식
구들보다 먼저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상처받아 뺄어진 이웃을 만나고 돕기 위해 복
음의 투사로서 활동해야 할 때, 반이나 단체에서 내가 맡지 않았으면 하는 감투나 역할
을 맡아야 할 때, 가정, 동네, 사회 복음화의 순간 순간... 그때도 예수님을 믿는지요?

7. 상처받지 않고 성숙하는 신앙

자신을 성숙시키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의’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고 싶다!”

두 번째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처음에는 원의대로 잘 나가다가 어느 정도 기쁨도 얻고 할만큼 했다 싶어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뭐, 이젠 좀 부담없이...” “규칙을 바꿨으면...” “반모임 꼭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하나? 딱 정해 놓지 말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와서 하면 될 텐데” “반모임 때 복음 나누기 안 하면 안 되나? 모여서 함께 뭐라도 하면 되지 꼭 복음 나누기만 해야 되나?”

세 번째는 ‘내면화’의 단계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택하고, 기뻐서 계속 더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신자분을 따라 신앙 생활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그분이 물의를 일으키고 신앙을 버리게 되면 나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됩니다. 완전한 성숙을 얻기 위해 서라기보다 자유를 얻고 자유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더 얻고자 하십시오. 느낌이 중요합니다. 남에게 내 느낌이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마십시오.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한다고 거기에 따라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누가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방황하는 것은 나이고, 화를 내는 것도 나요, 슬퍼지고 우울해지는 것도 나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만 주십시오. 자기 관리, 자기 절제의 문제입니다.

너무나 신경을 쓰게 되면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도와 주십니다. 새가 뭍니까? 날개 있는 동물, 날아가는 동물을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닭’이 새입니까, 아닙니까?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닭은 아주 위험할 때만 납니다. 언제나 더러움 속에서 먹을 것이 뭐 없나 하고 뒤집니다. 날개가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닭’과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닭은 마치 언제나 자신의 약함만을 내려다보면서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갈매기 ‘시갈’은 언제나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푸른 하늘만 바라보면서 위로, 위로 날아가는 ‘자유’가 있어 보입니다.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 속에 살도록 하십시오.

- 1993. 6. 게 올리버 신부, 이냐시오 영신 수련 8일 피정 강론 중에서 참조

나눔

‘나눔’1 부분과 피정 중에 기도하면서 얻은 느낌이나 변화를 함께 나눈다.

1. 이 과정을 통해 배우고 알게 된 주님과 주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오늘날 내 삶의 영양가 있는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2. 이 과정을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과 호소를 느끼고 있습니까?
3. 이 과정을 밟은 후인 지금 내가 꼭 해야겠다고 다짐할 만한 일은 무엇입니까?
4. 피정 중에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느꼈습니까?
5. 주님을 만남으로써 힘을 얻으셨습니까?

실천약속

주님의 자녀요, 제자로서 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포할 사도로서 내가 주님의 은총에 힘을 얻어 꼭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1. 어떻게 변화되고 싶습니까?
2. 변화되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되돌아봅시다

- “하느님께서 나를 돌봐 주셨어요!”

말씀 주님의 위엄과 인간의 존엄성(시편 8,2-10)

8²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하늘 위에 당신의 엄위를 세우셨습니다

³당신의 적들을 물리치시고

대항하는 자와 항거하는 자를 멸하시려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당신께서는 요새를 지으셨습니다.

⁴우러러 당신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당신 손가락의 작품들을
당신께서 굳건히 세우신 달과 별들을.

⁵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⁶신들보다 조금만 못하게 만드시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⁷당신 손의 작품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아래 두셨습니다.

⁸저 모든 양 떼와 소 떼
들짐승들하며

⁹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
물속 길을 다니는 것들입니다.

¹⁰주 저희의 주님
온 땅에 당신 이름, 이 얼마나 존엄하십니까!

실천약속을 위한 안내 신앙 체험 기록 -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

주님은 목자시니, 저는 양이옵니다.

주님,
주님은 제가 주님께 저를 바치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

제게 행복을 안겨 주셨습니다.

훗날 그때의 저를 보셨던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같이

그때 저는 제일 편안했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은 인간이 주님과 함께할 때 얻을 수 있다던 바로 그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그 행복을 주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주님,

그 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단 한가지 일만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은 바로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의 매 순간 매 자리에 함께해 주셨음을 저는 압니다.

제가 양이고자 했을 때 주님은 저의 목자가 돼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다가서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끌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알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뵈옵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느끼고자 했을 때 주님께서 저를 안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께 저를 바쳤을 때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리를 가르칠 때 주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미사를 드릴 때 주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의 성사를 집전할 때 주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제가 환자를 방문할 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제 입을 열어 당신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제가 곤경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 편을 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악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 대신 싸워 주셨습니다.
 제가 분노와 갈등으로 밤을 지새울 때 주님께서는 휴식을 주셨습니다.
 제가 혼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제가 고독해 할 때 주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주셨습니다.
 제가 텅비고 허전해진 가슴으로 먹을 것을 찾아헤맬 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배불려 주셨습니다.
 제가 목말라 할 때 주님께서는 성체성사로 적셔 주셨습니다.
 제가 실수했을 때 주님께서는 못 본 체해 주셨습니다.
 제가 피곤에 지쳤을 때 주님께서는 제 대신 일해 주셨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때 주님께서는 채워 주셨습니다.
 제가 유혹 중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안쓰러워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제가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또 범죄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거듭 범죄하여 수치감과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저를 불러 주셨습니다.
 제가 제 죄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했을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생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 곁을 떠나 도망치고 싶을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힘으로 나를 휘감아
 나도 모르는 새에 다시 주님 앞에 앉아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제가 다시 주님 사랑의 빛 안으로 나오도록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끌어내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저에게 겪도록 하심으로써
 저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제 생애의 순간 순간들이 그리고 저의 전생애의 역사가

주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 주님 앞에 다가와서 청합니다.
 주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와
 주님께서 저와 함께해 주셨던
 모든 순간들을 기억하며 청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일러 주시고
 성체성사로 먹여 주시는
 주님 앞에 서서 청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소서.

저는 주님밖에 매달릴 분이 없어서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을 세상 그 어느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 청합니다.
 저는 제가 바라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뿐이시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께 청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시고자만 하시면
 저에게 주님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에 주님께 청합니다.
 제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께 청합니다.
 주님 저를 복음의 사도로 써주소서.
 제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지펴 주시어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소서.
 언제나 주님께 다가와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저를 불러 주소서.
 주님께서는 제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제게 오셔서 저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하소서.

아멘.

나눔

홀로 조용히 앉아 자신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느님께서 어떻게 자신과 함께 해주셨는지를 깨달으며, ‘나와 함께 주님’이란 주제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써 보십시오.

비밀은 이야기하지 말고, 서로서로 자신을 나누어 봅시다. 한 사람의 나눔이 끝난 후 아래 노래를 불러 각자의 삶 안에 함께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Ⅱ: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주님은 좋으신 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알렐루야! :Ⅱ



부록 2 • 수록된 용어의 간략한 해설

가성직 제도 : 정식으로 성직을 수행하려면 적법한 주교로부터 사제 서품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만 그 성직 제도만을 본떠 운영했습니다.

가치관 : 가치관이란 자신이 어떤 사람 또는 사물을 대하는 자세나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생활 철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복에 대한 가치관을 돈이 많으나, 적으나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무엇을 결정할 때 돈을 제일 먼저 그리고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것입니다. 즉 ‘돈이 많이 드느냐?’, ‘비싼 것이냐?’, ‘돈이 많은 사람이나?’의 여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가끔 이 가치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자기가 하느님께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아는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가치관을 자신의 가치관으로 삼아 살아왔던 과거를 버리고, 신앙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자기가 하느님께 바라는 것보다는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 속에서 찾아 이룩해내야 합니다.

계시 :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하느님께서 직접 알려 주심. 계시 진리라고도 합니다.

고해 성사의 보속 : 고해 성사 때 사제의 사죄경을 받음으로써 고백자의 죄는 사해졌지만, 죄로 인해 남아 있는 벌(잠벌이라고도 함)을 보상하는 행위입니다.

공소 : 본당보다 작은 단위의 공동체로서 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단위 또는 건물

공심재, 공복재 : 영성체를 위한 육신의 준비로서 영성체 1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예의. 단, 물이나 약은 제외되며, 고령자와 병자 그리고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영혼의 준비는 회개와 고해 성사를 보는 것입니다.

관구 : 작은 교구들을 관할하는 대교구

교구 : 교회의 지역적 행정상 기본 단위

교구장 : 지역 교회인 교구의 사목 책임자로서 원칙적으로 주교입니다.

교도권 : 교회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신앙을 선포하고 교육할 권리와 의무

교무금 : 신자가 교회의 운영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내는 월별 봉헌금

(주일) 헌금 : 신자가 주일 미사를 드리면서 한 주일을 감사드리며, 오는 한 주일을 주님께 청하며 봉헌하는 헌금.

교적 : 신자들의 성사 생활 내용을 가족 단위로 기록해 놓은 것. 마치 주민등록과도 같아서 이사를 다닐 때마다 옮깁니다. 교적을 옮기지 않거나 판공성사를 지속적으로 받지 않으면 냉담자나 행불자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 : 예수를 주님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의 모임. 교회는 성직자를 중심으로 수도자,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그리스도인의 씨앗입니다” : 교부 테르툴리아노의 말씀으로, 세상은 신자들을 박해하고 죽여 교회를 없애려 하지만 오히려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을 맞이하는 순교자들로 인하여 새로운 신앙이 싹트고 교회가 건설된다는 의미입니다.

금육재 : 만 14세 이상의 신자가 주님의 수고 수난을 기억하며 연중 매 금요일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 풍습. ‘소재’라고도 합니다.

금식재 : 만 20세 이상 60세 이하의 신자가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여 사순 시기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한 끼는 아주 적게 한 끼는 보통으로 한 끼는 충분히 먹는 ‘단식재’를 지키는 예를 말합니다. ‘대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아낀 식량만큼의 재물을 이웃과 나누는 것이 이 예의 정신입니다. “너희는 따로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던 것입니다.”(마르 6,31 참조)라는 성경의 장면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습니다.

나탄 : 다윗 시대의 예언자.

노자 성체 : ‘죽은 사람이 천국까지 가는 긴 여행길에 힘이 되라고 영해 주는 성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영하는 성체를 말합니다.

다윗 : 학자들 간에는 이스라엘의 첫 공식적인 왕이라고 봅니다. 아버지 ‘이사이’의 아들 중 여덟 번째 막내아들입니다. 예언자 사무엘에 의하여 기름이 부어져 이스라엘의 왕으로 축성되었습니다. 그는 당시 왕 ‘사울’의 궁중 악사로 등용되었습니다가 ‘골리앗’이라는 불레셋 장수를 돌팔매질로 물리친 사건으로 장수가 되었고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였습니다(1사무 16-18장 참조).

그 후 사울의 시기로 망명 생활도 하였으나 다윗은 하느님의 뜻을 잘 따라 왕위에 올랐습니다(2사무 2장). 다윗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었고 잘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왕들을 평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후, 궁중 너머 여염집 뜰에 전쟁에 나간 ‘우리야’라는 병사의 아내 ‘밧 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욕정이 동하여 정을 통했습니다.

니다. 그리고는 우리야를 불러 들어 밧 세바와 함께 잠자리를 하도록 하였으나 우리야가 전쟁 중엔 깨끗해야 한다고 응하지 않자 요압 장군에게 “우리야를 가장 전투가 심한 곳에 앞세워 내보내고 너희는 뒤로 물러나서 그를 맞아 죽게 하여라”는 살인 명령을 내려 죽이고 밧 세바를 차지했습니다(2사무 11장).

훗날 밧 세바의 몸에서 ‘솔로몬’이 태어나 왕위를 이었습니다.

대부, 대모 : 영신의 아버지, 어머니란 뜻으로 세례자(또는 견진자)의 신앙생활을 이끌고 돌봐 주는 이를 일컫습니다. 한국천주교회에서는 세례자(또는 견진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대부, 여자인 경우에는 대모를 1명만 세웁니다.

대세 :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성사입니다. 이 성사는 신자 또는 신자가 아니어도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원하면 줄 수 있는 성사입니다.

대세 주는 법

– 7세 이하의 세례자에게 :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부르며) () 에게 세례를 줍니다.”

– 7세 이상의 세례자에게 : (물을 이마에 부으면서) “당신이 세례를 받을만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명을 부르며) () 에게 세례를 줍니다.”

– 대세를 줄 때, 의식이 아직 남아 있는 사람에게 세례 전에 반드시 가르치고 믿는지 확인해야 할 ‘천주교 4대 교리’

첫째, 살아 계신 하느님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구원하십니다.

둘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되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셋째,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며, 주님을 증언할 힘을 주신다.

또한 제1위이신 ‘아버지 하느님’(성부)과, 제2위이신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성자), 그리고 제3위이신 ‘부활하신 주님의 영’(성령)은 세 위격을 지니셨지만 한 분이신 하느님이시다.

넷째, 상선벌악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을 걸어 이 땅에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며,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대세자(대세를 받은 사람)는 정식으로 예비 신자 교리를 받기 전에는 영성체나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세를 준 사람은, 그 사실을 '세례를 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본당'에 알려 대세 대장에 기입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레위 :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사제 지파로서 주님께 제사를 지내고 성직에만 봉사하도록 한 가문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열한 부족이 가꾸어 얻은 소득에서 십분의 일씩을 떼어(십일조) 받아 생활합니다.

로만 칼라 :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이 성직자 복장의 목 부분에 착용하는 흰색 플라스틱 띠.
마르타와 마리아: 베다니아 동네에 사는 라자로의 누이들.

루카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시중을 들던 마르타가 주님께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하고 청하자, 주님께서는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라고 하심으로써, 활동의 중요성 못지 않게, 주님의 뜻과 말씀에 귀기울이는 것(성경 연구 및 기도와 관상)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일러주셨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요한 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간음한 여인’을 마리아라고 간주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12장 1절부터 8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리므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입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여러 표현들 : ‘구원의 날’이며 ‘심판의 날’입니다. 기쁨의 날인 동시에 슬픔의 날일 수도 있습니다.

공심판 : 인류 전체의 마지막 날의 심판을 말합니다.

사심판 : 인간의 죽음 이후의 개인적, 개별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천국 : 죽은 후에 선인들이 가는 곳

지옥 : 죽은 후에 악인들이 가는 곳

연옥 : 죽은 후에 작은 죄를 지은 이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자신의 죄를 씻는 동안 머무르는 곳

마태오 : 예수님의 삶 즉, 말씀과 행적을 기록(복음 – 기쁜 소식)한 사람의 이름. 복음은 4명의 복음 사가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태오 복음서’, ‘마르코 복음서’, ‘루카 복음서’, ‘요한 복음서’ 등 총 4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네 복음은 짧게 마태오 복음, 마르코 복음, 루카 복음, 요한 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모세 :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 히브리인으로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 태어나는 히브리인들의 남자 아기는 모두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지시에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성인이 된 후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후 동족을 핍박하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동족끼리의 싸움을 말리다가 자신이 이집트인을 죽였다는 사실이 탄로나자, ‘미디안’으로 피신하여 ‘르우엘’이라는 족장의 목동이 됩니다. 아내는 ‘치포라’이며 아들은 ‘게르솜’입니다(탈출기 1; 2장 참조).

미사 : “재판이 끝났다”라는 법정 용어로서 미사가 끝날 때 “Ite missa est”라고 외치던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사의 원형 동사인 ‘파견하다’(mittere)를 기억하여 파견의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인 십자가상의 제사와 부활을, 즉 미사의 성체 성사를 통하여 재현합니다. 미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업, 즉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제사와 잔치로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울러 미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또 하나의 성체로 파견됩니다.

미사 예물 : 특별히 미사 중에 사제에게 기도 바쳐 주기를 청하며 드리는 예물

보례 : 대세자에게 주는 세례의 보충 예절

본당 : 교회의 교구에 속하는 하나의 공동체

빠스카(pascha, pass over) 축제 : 과월절 축제, 즉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이집트 탈출을 기념하는 축제(양의 피를 이스라엘 집안의 문설주에 발라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 지나간 사건)입니다.

한편 신약에 와서는 과월절 축제와 최후의 만찬이 결합되면서(요한 19,36 참조) ‘성체 성사’와 ‘십자가상의 제사’를 통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출하였다는 의미로 부활 축제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빠스카 양 : 빠스카 축제 때 잡는 ‘양’으로 이집트인들에게 내리신 열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인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사건에서 비롯된 풍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과월절 축제를 준비하느라 빠스카 양을 잡던 과월절 전날 오후 3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기에 예수님을 빠스카 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느님(천주)의 어린 양’ 또는 ‘고양’이라고도 합니다.

선교사 : 신앙을 전교하는 사람(전교자라고도 함)

성경 :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실을 적은 책입니다. 그 속에는 인간이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이야기와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속을 썩임이나 벌을 받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는 이야기 등 인류가 하느님과 연관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쁨과 슬픔, 고통과 희망이 구구절절이 배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썼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들이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하나님 말씀으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탄생하시기 이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약성경 46권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드러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 우리 주님의 말씀과 활동을 신약성경 27권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총 73권입니다.

성령 : 아버지 하나님의 영(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부 : 아버지 하나님

성자 :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성체 : 축성된 예수님의 몸(재료 - 누룩 없는 밀빵). 신앙인들이 성체를 모심으로써 주님과 성사적으로 결합되고 일치되어 세상(과)의 영신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우리 영의 참된 양식입니다.

성체 조배 : 성체 앞(주님의 현존)에 머물러 있는 기도 방법

성체 강복 : 성체로 축복하는 예절

성체 현시, 성시간 : 성체를 성광에 모셔서, 신자들이 예수님의 몸(성체)을 직접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방법과 그 시간

성혈 : 축성된 예수님의 피(재료 - 순수 발효시킨 포도주). 우리 영의 참된 음료입니다(몸 속에 피가 들어 있습니다는 의미로 미사 때에는 일반적으로 성체만 영합니다).

세례 : 죄를 씻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 나는 것을 기념하는 예절(제23과 '세례 성사' 참조)

세례 증명서 : 세례 성사를 받았다는 증명서. 세례받은 본당과 교구청에 영구 보존합니다. 신자들이 받은 성사 사실을 기록하는 기록부의 종류에는 대세 대장, 세례 대장, 견진 대장, 혼인 대장, 병자 성사 대장 등이 있습니다.

세리 예수님 시대의 세리들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세금으로 낼 돈이 많이 없으니까 자기 돈으로 먼저 로마에 세금을 낸 다음, 그 돈에 이자까지 붙여 백성들에게서 걷기도 하고 또 고리 대금으로 돈(이자)놀이를 하였기 때문에 죄인으로 멸시당했습니다.

셋 :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는, “카인이 아벨을 죽여 버려, 하나님께서 그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나에게 세워 주셨구나.” 하면서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나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 때부터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기 시작하였다(창세 4,25-26).

수녀 : 여성 수도자/ 수사: 남성 수도자

순교자 : 신앙의 이유로 죽음을 당한 사람

시성 : 죽은 신자들 가운데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본받으라고 공식적으로 기적 조사를 통해 장엄하게 성인으로 선포하는 예절. 기적 조사는 그 죽은 신자에게 기도하여 실제로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죽은 후에 시작하며, 성인품에 오르기 전에 복자품 때 1차로, 그 후에도 계속 성인품에 올릴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조사합니다.

신부 : 사제 - 성직자

아브라함 : 이스라엘 역사와 신앙의 성조로 기억되는 인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의미로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 받습니다(창세기 17장 참조 - 부인 '사라이'는 많은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의미로 '사라'라고 고쳐 받습니다).

야곱 : 이사악의 아들로서 예사오의 동생이지만, 형으로부터 떡과 불콩죽을 주고 장자 상속권을 샀습니다(창세 25,19 이하).

야훼 : 하나님의 이름 '있는 나'라는 뜻

예비 신자 : 정식 신자가 되기 위하여 천주 교회 교리를 배우면서 세례 성사를 준비하는 사람.

요셉 : 라헬이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다면 야곱과의 사이에서 난 아들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야곱의 열두 아들 중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야곱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지만 나머지 형제들의 시샘을 사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하지만 거기서 성공하여 이집트의 재상이 됩니다(창세 29; 30; 37-50장 참조).

유아 세례 : 만 7 세 이하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의 신앙 고백을 증거 삼아 베푸는 세례성사

이사악 :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창세 21; 22; 24장 참조). 부인은 '레베카'입니다.

이사야 : 예언자의 이름. 예언자는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축제

과월절 : '파스카(pass over)'라고도 하며, 죽음의 천사가 거르고 '건너 지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의 맏아들과 맏배(첫번째 새끼)를 치는 열 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인의 집 대문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인들은 죽이지 않고 그냥 통과하고 지나쳐 목숨을 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축제입니다(탈출 12,1-14; 레위 23,4-5,7-9 참조).

무교절 : 너무나 급히 도망치듯 이집트에서 나오는 바람에 빵을 굽지도 못하고, 또 여행길에 상하지 않도록 누룩(효소)으로 부풀리지도 못한 채, 그저 반죽만 들고 떠났던 때를 기억하여 드리는 축제입니다(탈출 12,15-20; 12,34; 레위 23,4,6-8 참조).

오순절 :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을 기념하는 감사 축제(후에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대축일이

되었음)입니다(레위 23,9-22 참조).

전교 : 신앙을 전함

전례 현장(Sacrosanctum Concilium) : 전체 (세계) 교회의 주교님들이 모여서 교회 전례의 의미와 정신을 현대 세계에 맞춰 새로 쓰신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첫 문헌입니다.

조당 : 지속적으로 죄 중에 있기 때문에 성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일례로 신자가 혼인 성사(또는 관면혼인)를 받지 않고 그냥 사회식으로 혼인하고 살 경우나, 임의로 (사회식으로) 이혼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경우(유효화되는 혼인에 한하여)에는, 정식으로 혼인 성사를 받기 전에는 고해 성사를 받더라도 다시 죄 중에 있게 되므로 성사를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죄 중에 있어 다른 성사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성사 생활이 금지된 채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종부 성사 : 병자 성사의 옛 말로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받는 성사이며, 죽어 가는 이에게는 사제가 교황의 위임으로 전대사를 주고, 기름을 바르고, 노자 성체를 받게 합니다.

죄 : 죄인 줄 '알면서', '자기 스스로 원해서 고의로', '계획 실천한 행위'라는 세 가지 요건이 다 채워졌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주보 성인 :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들이 공경하고 또 자신들을 지켜 주십사 하고 청하는 신앙의 선조(성인·성녀 또는 복자·복녀) 개인의 경우에는 세례명으로 정합니다. 수호 성인 또는 수호 천사도 있습니다.

준성사 : “어느 정도 성사들을 모방한 거룩한 표징들로서 영적인 효험을 표시하며 교회의 간구(간절한 기구 - 기도의 옛 말)로써 그것을 얻어준다”(전례 헌장 60). 한 마디로 말한다면, 하느님 안에서 살고자 자신과 자신의 주위에 축복을 비는 신심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축복 - 교회의 교도권이 인정하는 주교나 사제가 하는 축복 행위와 축성으로 사람이나 물건[십자가, 성모상, 묵주, 자동차 등], 장소[성당, 집, 공장, 가게] 등에 하느님의 은총을 비는 것입니다. '축복', '축성' 또는 '방사'라고 합니다). 우리는 준성사를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신앙과 봉헌의 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첫영성체 : 유아세례를 받은 (또는 세례를 청하는) 만 7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아이에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는 데 필요한 교리를 가르치고, '첫 고해성사'를 준 후 (세례를 받지 않은 어린이는 세례 후에 첫 고해성사를 준다), 영성체를 시키는 교회의 관습

파라오 : 이집트 왕(구약 성경에서는 인간을 억누르는 세력으로 묘사됨)

판공성사 : 한국 천주 교회법에 의하여 신자들이 최소한 1년에 두 번(성탄 시기와 부활 시기) 받아야 하는 고해 성사. 한때는 이를 가을, 봄 판공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평신도 : 성직자, 수도자와 구별되는 일반 신자

토요 특전 : 주일날 부득이한 이유로 미사 참례를 못하는 이들을 위해 토요일 오후 4시 이후에 미

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하도록 함

한국 천주교회

한국 천주교회는 신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1777년 천진암 주어사에서 학자들이 모여 공부를 하던 중 천주교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중 이승훈이 1784년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았고 세례명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831년 천주교 조선 교구가 설립되었습니다.

한국 천주 교회는 지금 현재 조선 말기의 4대 박해를 거쳐 103위의 순교 성인이 계시고, 전체 인구 51,434,583명 중 신자수는 5,205,589명(10.1%)이며(서울은 10,575,446명 중 1,417,695명[13.4%]), 16개 교구에 32(3)분의 주교와 4,490(1,045)분의 신부와 1,609(224)개의 본당 및 813개의 공소가 있습니다. 신부님 한 분당 대비 평균 신자수는 1,159(1,356)명입니다(2010년 12월 31일 현재).

혼인 교리 : 혼인 성사를 받기 전에 혼인의 사회적 신앙적인 중요성과 불가해소성, 순결 및 자연법적 가족계획에 의한 산아조절 등을 교육합니다.

혼인 성사 준비 : 사제와의 '혼인 면담' 전에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와 '세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혼인 면담은 혼인할 사람의 교적이 있는 본당 신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신부에게 하려면, 본당 신부의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만일 혼인할 배우자 중 한 쪽이 신자가 아니면, 신자의 본당 신부에게 함께 가서 면담해야 함). 그리고 혼인 당일에는 혼인할 남·여의 증인을 남·여 각각 한 명씩 모시고 와야 하며, 혼인 반지도 각각 한 개씩 준비해야 합니다.

INRI [(J)esus Nazarenus Rex I(J)udaeorum] : 로마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머리 위에 붙였던 예수님의 죄목으로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사람)예수'라는 뜻입니다. 하느님만이 자신들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고 믿었던 유다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신성 모독죄입니다(요한 19,21 참조 -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입니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부록 3 • 성경 구절 찾아보기

창세기

1,1-2,4_ㄴ 천지 창조; 4과(32-33쪽)
2,4_ㄴ-9.15-25 아담과 하와가 지음받다; 5과(37-38쪽)
2,15-17; 3,4-19 원죄; 6과(41-43쪽)
3,15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원복음); 6과(45쪽), 13과(77쪽)
3,19_ㄴ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21과(107쪽)
4,1-5.8-11_ㄴ 가련한 이들을 돌보시는 하느님; 8과(52-53쪽)
4,25-26 죽은 아벨 대신 다른 자식 하나를 세우심(그이름 ‘셋’이라); 부록2(246쪽)

탈출기

3,7-14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2과(23-24쪽), 25과(124쪽)
12,21-27 파스카 축제; 29과(140쪽)
16,4.31.35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24과(119쪽)
20,1-17 십계명; 3과(27-28쪽)

신명기

6,4-5 “이스라엘아, 들어라!”; 15과(85쪽)

사무엘기 하권

12,1-15 나탄이 다윗을 꾸짖다; 7과(48-49쪽)

욥기

1,8-12.20-22; (2,5-7.10); 3,1-3.11; 4,1.7; 6,1-2.24-25; 7,7.18; 38,1-2; 40,7-8; 42,1-3; 10_ㄴ.16-17 “선한 사람이 왜 고통을 받는가?”; 11과(65-67쪽)

시편

8,2-10 주님의 위엄과 인간의 존엄성; 부록1(235-236쪽)
51(50),3-21 “하느님, 당신 자애에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6과(46-47쪽)
100(99),1-5 “온 세상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5과(40쪽)
139,1-18.23-24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 보시어 아십니다; 9과(56-58쪽)
148,1-14 주님을 찬양하여라; 4과(35쪽)

코헬렛

1,2-3; 3,1-22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10과(59-62쪽)

이사야서

7,14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13과(77쪽)
42,3-4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20과(103쪽)
43,1-7 이스라엘의 구원; 1과(20-21쪽)
52,13-53,12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 11과(69쪽); 30과(149-151쪽)
53,4_ㄴ.6_ㄴ. 최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11과(69쪽)

미카서

5,1_ㄴ “베들레헴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13과(78쪽)

마태오 복음서

2,1-2.5.9-11 동방 박사들의 방문; 13과(76쪽)
 3,1-4.8.13-17 세례를 받으시다; 14과(20-81쪽)
 3,17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1과(22)쪽
 4,1-11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시다; 15과(83-84쪽)
 5,3-12 참행복; 20과(100-101쪽)
 5,11-12 모욕하고 박해하며.. 20과(103쪽); 30과(148쪽)
 6,7-15 주님의 기도; 20과(103쪽), 26과(126-127쪽)
 6,14-15 용서; 20과(103쪽)
 6,25-34 세상 걱정과 하느님의 나라; 21과(105-106쪽)
 6,31-33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심을 아신다; 8과(55쪽)
 6,33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21과(108쪽)
 11,28-30 내 멍에를 메어라; 1과(15쪽)
 13,54-57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16과(86쪽)
 14,22-33 물 위를 걸으시다; 25과(123쪽)
 16,13-23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28과(135-136쪽)
 16,18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성품성사); 44과(204쪽)
 16,19 고백성사의 사죄권; 28과(138쪽)
 19,1-6 혼인과 이혼(혼인성사); 45과(205쪽)
 20,26-28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3과(115쪽)
 26,20-28 최후의 만찬; 29과(140-141쪽)
 26,27-28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30과(148쪽)
 28,1-10 부활하시다; 31과(152-153쪽)
 28,18-20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33과(160쪽)

마르코 복음서

1,16-18 “나를 따라오너라”; 23과(114쪽)

3,13-19 열두 사도를 뽑으시다; 23과(114쪽)

4,30-32 겨자씨의 비유; 21과(106쪽)

5,38-43 “탈리타 쿼!”; 19과(96-97, 98쪽)

6,7-13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병자성사); 46과(208쪽)

14,35-36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30과(149쪽)

루카 복음서

1,26-38 예수님의 탄생 예고; 12과(72-73쪽), 36과(176쪽)

1,42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12과(74쪽)

2,1-16 구세주의 가난하고 약한 탄생과 공현; 13과(75-76쪽)

2,14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20과(104쪽)

4,16.18-19.21 주님의 사명; 17과(89쪽); 19과(98쪽)

9,23-25 예수님을 따르려면; 23과(115쪽)

10,25-37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47과(211-212쪽)

15,1-3.11-32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22과(109-110쪽)

15,24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22과(112쪽)

18,15-17 어린아들을 사랑하시다; 19과(96쪽)

19,1-10 예수님과 자캐오; 18과(93쪽)

21,34-36 “깨어 기도하여라”; 37과(177쪽)

22,39-48.54-71; 23,1-2.22-23.32-56 구원을 위한 주님의 수난; 30과(144-147쪽)

23,34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20과(103쪽)

23,43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20과(103쪽); 30과(149쪽)

24,13-35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32과(156-157쪽)

요한 복음서

1,43-46 필리보와 나타나엘을 부르시다; 36과(174쪽)
 2,1-11 카나의 혼인 잔치; 36과(174-175쪽)
 3,1-6.15-17 니코데오와의 대화(세례성사); 40과(191-192쪽)
 3,3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39과(190쪽)
 5,1-10 벳자타 못 가에서 병자를 고치시다; 19과(97쪽)
 5,17 “…나도 일하는 것이다”; 18과(88쪽)
 5,19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17과(92쪽)
 6,5-15 오천 명을 먹이시다; 24과(119-120쪽)
 6,20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2과(25쪽)
 6,47-58 생명의 빵; 42과(196-197쪽)
 6,54-58.66 생명의 빵; 24과(119-120쪽)
 9,2 “누가 죄를 지었기에.”; 11과(68쪽)
 10,30; 14,6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28과(138쪽)
 11,3-4.17.21-27.34-44 라자로를 다시 살리시다; 27과(131-132쪽)
 12,24-26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38과(181-183쪽)
 13,4-8.12.15 세족례; 부록1(231쪽)
 13,34-35 새 계명; 3과(31쪽), 39과(188쪽)
 15,9₁-12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31과(154쪽)
 15,13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 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31과(154쪽)
 15,15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31과(154쪽)
 19,25-27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 36과(176쪽)
 19,28 “목마르다.”; 20과(103쪽)
 20,19-23 용서해 주면 용서받을 것이고(고해성사); 43과(199쪽)
 20,31 복음서를 쓴 목적; 47과(212쪽)

21,15-19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성품성사); 44과(202-203쪽)

사도행전

1,8-11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리시면…”(제자들의 사명); 33과(160쪽)
 1,13-14 기도하는 사도들; 36과(176쪽)
 2,1-4.36.41₁-47 성령강림과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34과(166-167쪽)
 2,46-47 초대 교회 신자들의 공동체 생활; 48과(214쪽)
 8,14-17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복음선포(견진성사); 41과(194쪽)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3-5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11과(70쪽)
 6,8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 40과(193쪽)
 8,25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46과(210쪽)
 12,1-2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14과(82쪽)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1,25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기 때문입니다”; 37과(180쪽)
 13,1-13 사랑; 23과(116-118쪽)
 13,7-8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어 냅니다; 43과(201쪽)
 13,12-13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10과(64쪽), 33과(162쪽)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6,16 “우리는 살아 계신 하느님의 성전”; 5과(39쪽)
 8,9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13과(77쪽)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22 “성령의 열매는”; 20과(103쪽)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5,24-25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45과(207쪽)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2,1-4 같은 생각, 같은 사랑, 같은 마음; 7과(51쪽)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1,24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11과(70쪽)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5,16-18 언제나 기뻐하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2과(29쪽); 20과(102쪽)

야고보의 서간

1,13-14 시련과 유혹; 26과(130쪽)

요한의 첫째 서간

4,7-21 사랑과 믿음; 35과(170-171쪽)

문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16; 20과(103쪽)

김대건; 마지막 옥중 서간; 38과(181-183쪽)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 헌장 11; 40과(192쪽); 41과(195쪽) 42과(197-198쪽); 43과(200쪽); 44과(203쪽); 45과(206쪽); 46과(209쪽)

요한 바오로 2세; ‘혼인’-교회 법전 제4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055조 1항; 45과(206쪽)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 헌장 59; 39과(189쪽)

제2차 바티칸공의회 전례 헌장 60; 부록2(248쪽)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 헌장 2, 10, 11, 12, 102, 106, 109, 110, 111, 112-130; 교회의 전례 정신; 48과(215-216쪽)

부록 4 • 기도문

성호경

(십자성호를 그으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송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밀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인다.)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 (가슴을 치며) 제 탓이요 (가슴을 치며)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하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식사 전 기도

+ 주님, 은혜로이 내려주신 이 음식과 저희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식사 후 기도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나이다.

◎ 아멘.

+ 주님의 이름은 찬미를 받으소서.

◎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부모를 위한 기도

○ 인자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며

그 은덕에 감사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겠나이다.

● 저희 부모는 저희를 낳아 기르며 갖은 어려움을 기쁘게 이겨냈으니

이제는 그 보람을 느끼며 편히 지내게 하소서.

○ 주님, 저희 부모에게 강복하시고 은총으로 지켜주시며

마침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자녀를 위한 기도

○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저희에게 귀한 자녀를 주시어

창조를 이어가게 하셨으니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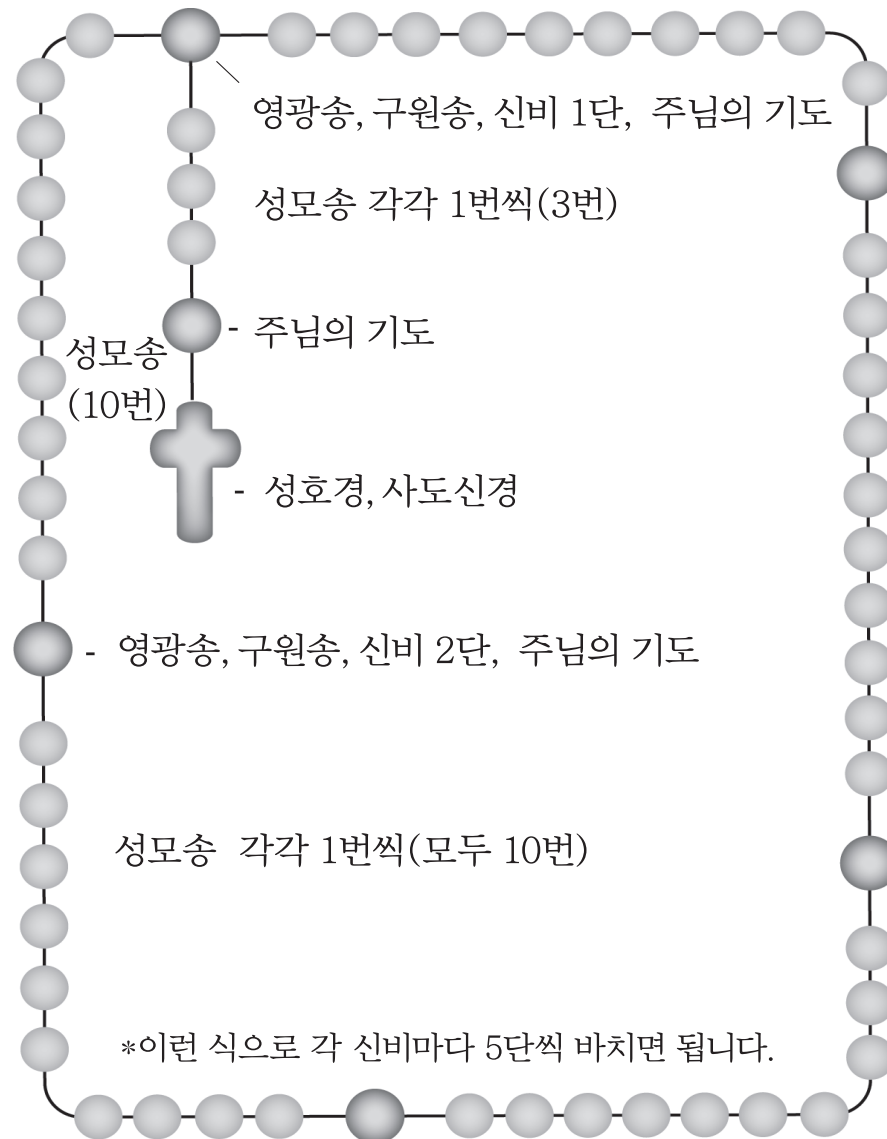
● 주님, 사랑하는 저희 자녀를 은총으로 보호하시어 세상 부패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온갖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묵주기도(로시리오) 바치는 법



묵주기도의 신비

환희의 신비

-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

-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고통의 신비

-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영광의 신비

-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따뜻해서도 이루어지소서

교회인가 | 2013년 8월 26일

초판 1쇄 | 2013년 11월 1일

엮 음 | 심홍보

사 진 | 김귀웅

펴 낸 이 | 전갑수

펴 낸 곳 | 기쁜소식

등 록 일 | 1989년 12월 8일

등록번호 | 제 1-983호

136-875 서울 성북구 성북로5길 44(성북동 1가)

전화 02-762-1194, 팩스 02-741-7673

이메일 goodnews1989@hanmail.net

가격 11,000원

ISBN 978-89-6661-035-8 03230